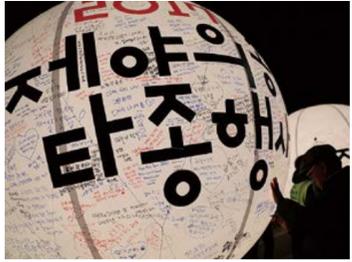


3년만에 경북대중 제야의 종 울린다

이철우, 도민에게 드리는
희망의 신년메시지 전달



2017년 한해를 마감하는 '제야의 종 타종행사'가 열리는 31일 밤 서울 종로 보신각 인근에서 시민들이 대형 풍선에 새해소망을 적고 있다.

경북도가 31일 지정 영덕 삼사해상공원에서 도민과 관광객 등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야의 경북대중 타종행사를 3년 만에

연다.
도는 지난 2년간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이 행사를 취소했다.
타종행사는 풍물단과 취타대를 앞세운 도와 23개 시군 기수단의 종각 입장 행진으로 시작된다.
타종에 앞서 대중 앞 계단제막과 시군 등 점등, '경북+대구 2019년 희망영상' 등이 새해를 맞는 기대감을 높인다.
관광객들과 도민이 어우러져 함께 초입기 외친다.
1월 1일 오전 0시 이철우 경북지사가 첫 타종을 하고 이어 기관 단체장과 도민 등 60여명이 모두 33회 타종하게 된다.
이 지사는 '도민에게 드리는 희망의 신년메시지'를 전하고 새해의 희망을 담은 퍼포먼스와 달집태우기로 도민의 안녕과 더 큰 경북으로의 도약을 기원한다.
새해 첫 해맞이 행사는 1월 1일 오전 7시부터 포항 호미곶 해맞이광장에서 '호미곶의

새 빛, 포항의 희망을 깨우다'는 주제로 진행된다.
대북공연이 여명을 일깨우고 이어 신년사와 신년시 낭송, 포항시 승격 70주년을 기념한 퍼포먼스 등이 함께 펼쳐지면서 기해년 첫해를 맞이하게 된다.
이 지사는 오전 10시 30분에는 영천 호국원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최기문 영천시장을 비롯한 도와 대구시 및 영천시 간부공무원과 함께 현충탑 참배를 한다.
1월 2일에는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2019 기해년 정부 신년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다음 날인 3일 오전 9시에는 도청 화백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시무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새해 업무에 돌입하게 된다.
경북도는 "올해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아 천만다행"이라며 "이 행사뿐 아니라 2년 연속 취소됐던 정월 대보름 달집태우기 등도 올해는 제대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성용 기자



아듀 2018... 2019년 힘찬 불빛처럼

다사다난했던 무술년(戊戌年)이 저물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보며 평화를 외쳤지만 정작 여와 야,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싸움으로 전과 다름없이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에는 어려움 끝까지 않고 제 길들 찾아 힘차게 뻗어 나가는 불빛처럼, 국회가 인생을 위해 어떤 유혹과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진정성과 용기를 갖고 뚝뚝을 기원한다.

올해 외국인 관광객 역대 최대 대구 찾았다

연말까지 약 57만명 대구 방문
중화권 관광객 26만2000여명
전년대비 무려 49.6% 증가



지난해 11월 1일 대구시 동구 지저동 대구공원에서 대구~태국 정기노선을 통해 처음 입국한 태국 관광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1월말 기준으로 대구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51만4000여명으로 오는 연말까지는 약 57만명이 대구를 방문해 지난해 40만 1000여명과 대비해 4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방한 단체관광 금지조치가 완전히 풀리지는 않은 상태에서 중국시장 중심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관광시장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대만, 동남아, 일

본시장을 겨냥했다.
대만시장의 경우는 타이베이에서 제2선 도시(가오슝, 타이중)로 마켓시장을 확대하고 동남아 시장은 신규 성장시장(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개척 및 세일즈플 등 기업인센터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주력했다.
일본시장은 후쿠오카, 도쿄에서 가고시마, 구마모토로 마켓시장으로 확대, 특정시장 편중을 완화하는 등 전 방위적인 시장관리를 했다.
위축된 중국시장의 안정화 모색을 위해 중국 현지 민간단체 교류 확대 및 문화·예술·교육·스포츠를 관광에 접목했다.
하북성 예술공연교류단, 실버생활체육동호회, 대구FC-유소년 축구교류, 하남성 실버문화예술교류단 등 민간 차원의 교류목적 관광객을 대구로 유치했다.
대만·일본시장은 대국공항으로 입국하는 전세기 관광객을 적극 유치했고, 외국인 여행작가 헤레나(대만), 야사치(대만), 조이스(홍콩), 안소라(일본) 등의 유료 여행책자 발간 등 현지에서 손쉽게 대구관광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과 대만의 인기 예능프로그램을 유치, 대구를 배경으로 방송 촬영하는 등 개별여행객(FIT)에게 매력적인 관광지로 대구를 알리는 등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펼

쳐왔다.
동남아 시장은 태국 개별관광객을 타깃으로 아리랑TV의 예능프로그램 촬영 유치 및 한류드라마 촬영지를 상품화하고 베트남 다낭, 하노이 등에 대구관광 홍보설명회(대구관광의 밤)를 개최하는 등 동남아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였다.
이러한 다양한 마케팅 사업추진으로 올해 1~11월 대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51만4000여명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동월기준 37만4000여명보다 37.2% 증가했다.
해외시장별 관광객 수를 보면 대만, 홍콩 등 중화권 관광객이 26만2000여명으로 전년대비 49.6% 증가해 가장 많았고 구미주 관광객은 11만여명으로 18.1% 증가, 동남아 관광객 6만4000여명으로 51.2% 증가, 일본 관광객 5만7000명으로 37.3% 증가했다.
시는 △모두가 누리는 여행친화환경 조성(10대과제) △대구·경북 상생협력 관광(14대과제) △경쟁력 있는 매력관광 콘텐츠 개발(5대과제) △고(高)유입 관광홍보마케팅(4대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외국인의 대구 방문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2021년까지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2019년(실행기), 2020년(성과기), 2021년(안정기) 등 사업 단계별로 진행해 대구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열어가는 상생관광의 틀 모델을 연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해외 관광시장 다변화, 매력관광 관광콘텐츠 개발, 인프라 확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대구·경북 '경찰의 꽃' 총경 승진자 5명 배출

경찰청, 총경 82명 승진
김기대·곽동호·최미섭
이정섭·안문기 총경승진

경찰청이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승진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경찰청은 지난 28일 박대식 경찰청(본청) 법무계장(경정) 등 82명을 총경 승진 예정자 명단에 올렸다.
총 승진 인원의 절반이 넘는 42명(본청 17명, 서울경찰청 25명)이 서울권에서 배출됐다.
대구·경북에서는 5명이 총경으로 승진했다.
대구 3명, 경북 2명이다.
대구경찰청은 김기대 경무계장, 곽동호 생활안전계장, 최미섭 청문감사담당관실 감찰

계장이 총경 승진 내정자로 이름을 올렸다.
경북경찰청은 이정섭(49) 여성보호계장 안문기(53) 경무계장이 총경으로 승진한다.
이번 인사에서 순경 공채 등 일반 출신 비중이 전년도보다 커졌다.
전년도 총경 승진인사에서는 86명 중 18.6%(16명)가 일반 출신이었지만, 올해에는 20.7%(17명)를 차지했다.
여경 승진자도 4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
총경은 치안총감(경찰청장), 치안정감(경찰청 차장,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경찰청장, 경찰대학장), 치안감(지방경찰청장), 경무부(지방경찰청 차장) 다음 계급으로 일선 경찰서의 서장이나 지방청 과장급에 해당된다.
경찰청은 이번 총경 승진 예정자를 포함한 총경급 전보 인사를 내년 1월 초까지 마무리한다. 김대훈 기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뤄지고,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일보 임직원 일동

조여은 기자

대구 약령시 랜드마크, 한방의료체험타운 (19.6월 개소 예정)

한방 의료·뷰티체험, 한방 문화체험 및 교육, 한방 스타트업 발굴 및 창업 공간 제공, 한방제품 전시판매장·한방산업홍보관 운영

- 위치: 대구 중구 종로2가 39-1
- 규모: 지하 1층, 지상 7층(연면적 2,608㎡)

한방카페/먹거리



한방산업 홍보관



약령시 우수 한방제품 전시 및 판매



한방 문화·의료체험



한방 스타트업 창업공간



대구시, 전국 최초 사회서비스원 출범

대표 1명 포함 임원 15명 공개모집 2월 설립허가 직원 채용... 3월 출범

대구시는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사회서비스원을 이끌어 갈 임원을 공모하는 등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관련 분야 종사자 처우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민선7기 공약으로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대구시는 2018년 6월부터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9월에는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11월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설립에 관한 협의를 모두 마쳤다.

아울러 내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통해, 법인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예정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종합재가센터 운영, 대구형 복지정책의 연구·개발, 민간 복지·서비스 지원 시설의 컨설팅 등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투명성 제고, 전문성 등을 실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구사회서비스원을 이끌어갈 대표(사회서비스원장) 1명(상근), 이사 13명 이내(비상근), 감사(공인회계사) 1명(비상근)

을 공모한다. 사회복지·사회서비스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있다.

내년 1월중 임원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원 선임을 완료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월에는 보건복지부 설립허가를 받아 직원을 채용하고 3월이면 출범해 시험회맹원 등 국·공립복지시설을 대구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백운자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임원 공모를 통해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응모해 대구사회서비스원이 대구 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전국에서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

대구도시철도, 3호선 황금돼지 드림열차 운행

내년도 2월말까지 3호선 1편성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내년도 2월말까지 3호선 열차 1편성 내부를 황금돼지 드림열차로 조성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도시철도 이용시민들에게 건강, 행복, 꿈을 주제로 한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

드림열차는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 황금돼지해를 맞아 황금돼지 캐릭터를 활용해 열차 내부를 래핑했다.

운행기간 중 희망메시지, 퀴즈풀기 이벤트를 진행하며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한다. 이벤트 참여방법은 황금돼지 드림열차 내 래핑된 메도란에 2019년 새해 희망메시지 또는 도시철도 관련 퀴즈 정답을 기재해 인증샷을 촬영해 인적사항(이름, 휴대폰 연락처)을 공사 이메일(hopedtro@dtro.or.kr)로 전송하면 된다.

행사가 종료된 이후 참가자 중 100명을 추첨해 커피 기프트콘을 문자로 발송한다. 특히 가족, 연인, 친구들과 같이 찍은 인증샷



송부 시 당첨 우선권을 선착순으로 부여한다. 한편 공사는 황금돼지 드림열차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통째로 대여해주는 이벤트 열차로도 선보일 계획이다. 개인 및 단체 등이 대여를 신청하고 일정한 운임을 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홍승환 사장은 "앞으로도 3호선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를 강화해 색다르고 재미있는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수송수요증대 및 도시철도 이용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총희 기자



30일 경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8대구시민 희망전진대회'에서 김은희 대구시교육감은 7개 국가의 다문화가정 자녀 7명에게 교육감 표창장을 전달했다.

대구시민 화합의 축제 한마당 '희망전진대회' 개최

시민 7000여명 참여

2018년을 하루 남겨둔 12월 30일 '2018대구시민 희망전진대회'가 경산실내체육관에서 배기철 동구청장, 조재구 남구청장 등 대구권 정치·언론·종교지도자와 7000여명의 대구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대구시민대학총연합회(회장 변시우)와 대구시참가정실천운동본부(본부장 정동원)가 주최하고 대구광역시교육청과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대구시회(회장 변사흠), 다문화종합

복지센터 대구시지부(지부장 이은주)가 후원했다.

이날 대회에서 김은희 대구시교육감은 7개 국가(일본·태국·필리핀·중국·우즈베키스탄·베트남·세터민)의 다문화가정 자녀 7명에게 교육감 표창장을 전달했고, 이기성 참가정실천운동본부 한국회장이 10개의 실버대학 모범가정 10명에게 '효정부모상'을 시상했다.

김은희 교육감은 축사에서 '실버 세대의 평생교육과 유기적인 연계도 고려하여 대구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김규환 국회의원은 '한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어르신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대구시 경제살리기에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설용수 박사(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평화번영의 한반도 통일대한민국' 주제강연후 '대경하모니카아카데미'의 100인 하모니카 연주와 실버대학가요제입상자들의 공연, 가수 조항조의 메들리공연으로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최경수 기자

"주차 걱정 훌훌"... 공영주차장 확충 개방

대구 달서구, 이곡동

대구시 달서구가 자투리땅을 이용한 마을 단위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개방한다.

달서구는 28일 "이곡동 공영주차장을 준공해 주민들에게 개방했다"고 밝혔다.

주택 밀집 지역 주민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

고자 달서구가 마련했다.

이곡동 공영주차장은 성서운동장 북편에 연면적 2508㎡, 63면의 주차공간을 갖췄다.

달서구는 두류정수장 유휴지에 연면적 1805㎡, 62면의 공영주차장도 개방했다.

올해 달서구는 마을 단위 공영주차장 4곳, 임시공영주차장 2곳을 준공했다.

뉴스

내년에는 대곡동 및 한살 1·2호 공영주차장(32면), 도원동 수밭마을 공영주차장(83면), 대곡동 아래한살1호 공영주차장(15면) 등을 조성한다.

이 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은 모두 55억 원이다. 민간 주차장 공유 사업에서는 도원고, 해울중고, 대구외고 등 3곳의 주차장 개방을 유도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임당역

대구도시철도공사는 2호선 임당역에 피아노계단을 조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용객의 건강증진과 도시철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사가 기획했다.

피아노 건반 형태로 된 계단을 밟을 때마다 건반 소리와 함께 LED 조명이 켜진다.

스스로 건강을 점검할 수 있는 건강증진테마존도 조성했다. 혈압계, 체중계, 신장계 등을 갖췄다.

정평역에는 정신건강 증진, 임당역은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 관한 수칙이 담긴 건강정보



를 벽면에 부착했다. 경산보건소는 매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역사 내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한다. 뉴스

365일 안전하고 깨끗한 대구 수돗물!
그냥, 드셔도 좋습니다.

고도정수처리한 대구 수돗물!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물입니다.
수돗물을 맛있게 먹으려면?
- 수온이 5~10℃ 정도의 찬물이 가장 맛이 좋다
-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을 후 열소 냄새를 없애기 위해 30분 정도 두었다가 방전고에 보관한 후 마시는 것이 좋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후손에게 물려 줄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화장실, 주방, 세탁실, 욕실 생활속 물 아껴 쓰기를 생활화 합시다

Waterworks Headquarters Daegu Metropolitan City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북도, 아듀 2018! 새바람 2019! 연말연시 행사 풍성

12월 28일, 직원조회 끝으로 2018년 한 해 마무리 자리 마련 새해 첫 날, 영덕 삼사해상공원 경북대중 울리며 힘차게 출발 포항 호미곶 해맞이 행사 이어 대구시장과 영천호국원 참배 1월 2일 정부 신년회 참석

경북도는 지난 28일 오전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마무리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송년 직원과의 만남행사는 도립교향악단의 식전공연에 이어 국민의례와 연말 각종 평가 시상 및 유공자 표창, 송년인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도청직원으로 구성된 취미클럽 '프라이드밴드'와 '프라이드합창단'의 공연으로 마무리했다.

이철우 지사는 송년인사말을 통해, 취임시도 생각한 채 태풍대비 관계기관 회의의 주제로 민선7기를 시작한 후 숨 가쁘게 달려왔던 한 해를 회고하면서,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와 일자리창출, 국비예산 확보 등 새바람 행복경북의 주춧돌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온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2018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자정에는 영덕 삼사해상공원에서 도민과 관광객 등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야의 경북대중 타종행사가 3년 만에 개최된다.

도민의 화합을 다지고 희망찬 새해의 시작을 알리기 위한 타종행사는 풍물단과 취타대를 앞세운 도와 23개 시·군 기수단의 종각 입장퍼레이드로 시작한다.

타종에 앞서 대중 앞 계단제막과 시·군 등 점등, 경북+대구 2019년 희망영상으로 새해를 맞는 기대감을 고조시킬 예정이다.

하이라이트인 타종은 관광객들과 도민이 어우러져 함께 카운트다운을 외치는 가운데 1월 1일 0시를 기해 이철우 경북지사가 힘차게 첫 타종을 하게 된다. 이어 기관·단체장과 도민 등 60여명이 총 33회 타종을 이어 나간다.

이철우 지사는 '도민에게 드리는 희망의 신년메시지'를 전하고 새해의 희망을 담은 퍼포먼스와 달집태우기로 도민의 안녕과 더 큰 경북으로의 도약을 기원할 예정이다.

새해 첫 해맞이 행사는 1월 1일 오전 7시부터 포항 호미곶 해맞이광장에서 '호미곶의 새빛, 포항의 희망을 깨우다'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힘찬 대북공연으로 새 아침의 여명을 일깨운 뒤, 신년사와 신년시 낭송, 포항시 승격 70주년을 기념한 퍼포먼스 등이 함께 펼쳐지면서 기해년 첫 해를 맞이하게 된다.

이철우 지사는 오전 10시 30분에는 영천 호국원에서 관영진 대구시장, 최기문 영천시장을 비롯한 도와 대구시 및 영천시 간부공무원



경북도는 지난 28일 오전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마무리하는 자리를 가지고 연말 각종 평가 시상,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과 함께 현충탑 참배를 한다. 대구시와 처음으로 신년 참배를 함께 하는 만큼 기해년을 맞아 양 시·도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교류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월 2일에는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

최되는 '2019 기해년 정부 신년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다음 날인 3일 오전 9시에는 도청 화백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시무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새해 업무에 돌입하게 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신년인사말을 통해 "작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중심으

로 가는 작지만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올 해의 신년화두가 '환골탈태'인 만큼 공직이 변해야 경북이 산다는 각오로 아이 키우기 좋고 일자리 넘치는 새바람 행복경북을 향해 도민과 손잡고 힘차게 달려나가자"고 강조했다.

김성용 기자

이동필 전 장관, 농촌살리기 정책자문관에 임용

경북농업에 새 바람 불어 넣는다 풍부한 경험으로 새 농정방향 제시



고령화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소득 걱정 없는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경북도가 농업분야 인재 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경북도는 경북 농업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농촌살리기 정책자문관으로 제16대 전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을 2019년 1월 1일자로 임용한다고 밝혔다.

정책자문관으로 임용되는 이동필 전 장관은 농업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및 농산어촌 6차산업화 등 도청 역점시책에 대한 정책자문과 새로운 농업 소득자원 발굴, 지역 특색을 살린 농촌모델 발굴업무를 맡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 6개월간 농식

품부 장관을 지낸 이동필 정책자문관은 우루과이라운드(UR)이후 두 차례나 유예됐던 쌀의 관세화를 주도하고,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농업의 6차산업화를 정부 핵심시책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첨단 농업기술과 자본이 집약된 스마트팜을 농업에 접목하고 확산시키는 등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굵직한 농정현안을 직접 해결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다.

특히 한약재로 분류돼 식품원료로 사용 할 수 없었던 복분자의 규제 완화로 막걸리를 세계적인 술로 육성하는 등 전통주의 산업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평소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소신으로 농촌 경제연구원장 재임시절 농촌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막걸리를 나눠 마시며 현장소통을 했고, 장관취임 이후에는 '한 달(1)에 두 번(2) 이상 현장방문, 세시간(3) 이상 사람(4)을 만나 소통한다'는 의미로 '이동필의 1-2-3-4'를 기획, 전국을 두루 찾아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책상머리가 아닌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는 정책을 펼친 것으로 유명하다.

경북도는 이동필 전 장관의 정책자문관 임용에 따라 지역 농업·농촌 현장과 중앙을 아우르는 소통행진 추진으로 도 농정시책이 정부 지원사업으로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양한 소득원발굴과 부가가치 창출로 새로운 경북농업 부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성용 기자

연말연시 AI 특별방역 강화한다

겨울철새 다수 도래 등 AI 발생 위험성 가장 높은 시기 집중 방역관리 나서 AI 특별방역 강화 대책

경북도는 연말연시 맞아 AI 특별방역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12월 ~ 1월 겨울철새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시기를 맞아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 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AI 발생 위험성이 가장 높은 시기에 집중 방역 관리 나선다.

지난 3.17일 충남 아산 산란계농장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고병원성 AI 발생은 없으나 최근 겨울철새 개체수가 증가하고 야생 조류에서 전국적으로 AI 바이러스 검출이 증가하는 등(전국 43건, 경북 2건 검출) AI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연말연시 인구이동이 늘어나는 시기에 대비해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및 진입로 매일 소독, 산란계·종계·종오리 농가 일일 산란율·폐사율 점검, 방역취약대상 농가 현장방문 점검, 전통시장 휴업·소독의 날(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운영 등 연말연시 AI 특별방역대책을 강화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AI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24시간 비상체제 유지, 거점소독시설 5개소 운영, 살처분 예비인력(3144명)에 대한 교육 및 예방접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방역교육 등 신속한 대응체제를 확립했다.

또한, 철새도래지(7개소) 주변도로 소독 및 출입통제, 인근농가 예찰 및 점검, 밀집사육지역(6개소) 통제소소 운영, 알전용차량 지정운행, 산란계·종계·종오리·방역취약대상 농가 전담공무원 지정 운영, 가금농가 입식전 신고제, 농가 자율점검 강화, 전통시장 유통가금 출하 전 검사 및 이동승인서 발급 등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경북도는 '가축방역은 매우 빠르게 매우 지나치게 특공대 정신으로' 표어 아래 강력하고 신속한 방역조치로 지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 유일의 비발생지역을 유지하고 있으며 12월 ~ 1월에 특히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몇 년간의 AI 발생동향으로 볼 때 지금이 AI 차단방역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AI 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해 가금농가, 축산관계자는 물론 모든 도민들이 한마음으로 철새도래지 방문자제 등 차단방역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규 기자

경북관광테마열차, 온라인 퀴즈쇼 잼라이브에 나온다

경북도, 잼라이브와 함께 홍보



경북도는 30일 내년도 1~2월에 걸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온라인 퀴즈쇼인 잼라이브에 경북도 관광 관련 문제를 송출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방송은 경북의 중서부권 관광진흥협의회와 함께 화차당 1~2문제씩 총 9개의 퀴즈를 출제한다.

경북도는 우수한 철도 인프라와 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연계해 운영 중인 경북관광테마열차에 대한 퀴즈를 준비했으며 이 밖에도 김천, 구미, 경산, 군위, 청도, 고령, 성주, 철곡에서 관광에 관한 퀴즈를 1문제씩 출제해 경북을 알린다.

경북도는 지난 7월 민선 7기 출범 경북발전 10대 분야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세계인이 찾아오는 관광명소 경북'을 정하고 세계로 열린 관광 경북의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김용규 기자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가야의 숨결이 깃든

경북의 가야문화

상주 고령가야



상주 고령군사적 제38호

경상도문화유산(경상도문화유산) 1999년 12월 18일 문화기증용 제1호로 지정

성주 성산가야



성주 고령군사적 제38호

1999년 1월 21일 사적 제389호 지정, 성산가야 수정중의 유적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1357기 확인. 출토유물은 870여점. 현재 성산가야 출토 유물 총 1,300여점에 이함

고령 대가야



경상도문화유산(경상도문화유산) 1999년 12월 18일 문화기증용 제1호로 지정

경북의 가야문화! 우리가 알고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오늘 드디어 조국 출석 민주당 VS 한국당 격돌

강석호 “文정권, 비핵화 없는 대북정책은 본말전도”

한국당, 운영위원 전원 당내
특감반 진상조사단 소속
민주당, 운영위에 법조인 출신
박범계·박주민 긴급 투입

조국(사진)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여야가 국회 운영위원 명단을 교체하는 등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30일 운영위원회에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9명을 보임한다고 밝혔다. 보임된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해 김도읍·송언석·이만희·이양수·최교일·강효상·전희경 의원으로 전원이 당내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소속이다.

한국당은 운영위원 전원을 이번 특감반 사태 초기부터 다량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진상조사단으로 구성해 조 수석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한국당 진상조사단은 30일 오후에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운영위에서의 역할 분담과 전략 등을 집중 논의했다. 한국당은 운영위에서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집중 추궁하고 조 수석의 인사검증 책임도 물을 계획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의 통과를 위해 조 수석의 출석을 받아들이지만 공세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역시 운영위 선수교체를 통해 전력 보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운영위 소속 의원 사·보임을 통해 법조인 출신 박범계·박주민 의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은) 이번 사안을 정쟁화하려고 작정한 것 같다”며 “우리는 한국당이 하는 정치공작의 실체를 팩트 정리를 통해 밝히고 범법자인 김태우 전 검찰반원과의 커넥션이 뭘 낱낱이 밝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운영위에 법조인 출신인 박범계·박주민 의원을 투입해 전열을 가다듬었다. 박범계·박주민 의원은 각각 판사, 검사 출신이다.

서 원내수석은 통화에서 “원내대변인인 강병원·권미혁 의원을 박범계·박주민 의원으로 사·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원내수석은 “박범계·박주민 의원 모두 법조인 출신이고 박범계 의원은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만큼 한국당이 거짓말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조 수석을 두고 대어 공세를 예고한 만큼 민주당 역시 법조인 출신을 긴급 투입해 맞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한편 운영위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하는 건 지난 2006년 참여정부 때 정해철 민정수석이 출석한 후 12년 만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는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나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조 수석이 국회 상임위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이 아닌 특정 사안을 이유로 소집된 운영위에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평가다.

뉴스스

강석호(사진) 국회 외통위원장은 30일 문재인 정권의 2018년 대북정책과 관련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는 점을 들어 “심각한 본말전도(本末顛倒)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강 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요란스럽게 추진한 3차례의 남북정상 회담으로 마치 북한의 비핵화가 당장이라도 이뤄질 것처럼 포장하지만,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핵 능력을 완성해 더 이상 핵 실험이 필요 없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북한 비핵화의 본질로 평가하기는 힘들다”며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철거 역시 이동

식 발사대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미미한 것이므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협력에 대한 합의는 차고 넘친다”고 분석했다.

강 위원장은 “9·19공동성명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우리 감시초소(GP)의 병력과 장비의 철수까지 모두 북한의 비핵화 없이 우리가 앞서 단행한 조치”라며 “이 과정에서 한미공조를 흐트리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유엔 제재 정진까지 훼손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 정권의



구호가 무색하게 북한의 인권문제, 남북자 문제는 행여나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까 꺼내보지도 못했다”며 “남북대화의 성패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여부에 달렸고, 첫 단추는 핵(核)리스트 신고 및 검증 확약”이라고 했다.

강 위원장은 “일의 속도를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라며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자발적 무장해제로 몰아넣는 굴종의 행보를 멈추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구현할 대북정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뉴스스

靑 “김정은, 文대통령에 친서… 서울 방문 강한 의지 나타내”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18일 무개차를 타고 평양시내를 퍼레이드 하며 시민들의 환영에 답하고 있다.

김정은 A4용지 두 장 친서
“文대통령 조만간 답장”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서울 답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청와대가 30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북한 김 위원장이 오늘 문 대통령 앞으로 친서를 보냈다”며 친서 내용을 의역한 것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의 친서는 A4용지 두 장 분량이며,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친서를 받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친서를 통해 2018년을 마감하는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내내에도 남북 두 정상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두 정상이 한 해에 세 번씩 만나며 남북 사이에 오랜 대결 구도를 뛰어넘는 실질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이뤄냈고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을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한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뉴스스

서울시민 10명 중 7명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찬성’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개최 찬성 70.2%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10명 중 7명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이달 7일부터 13일까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8.0%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22.4%에 불과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남성의 찬성 비율이 70.3%로 여성 65.8%보다 높았다. 연령별로

는 30대, 40대의 찬성 비율이 각각 68.4%, 77.8%로 20대(59.8%), 50대 이상(65.1%) 대비 높았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가장 희망하는 이벤트로는 ‘시민 대상 연설’(38.1%)이 꼽혔다. 이어 △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 촛불문화제 개최 21.7% △두 정상에게 소망 글 전달 15.1% △시민참여 플래시몹 7.0% 등 순이었다.

통일 필요성과 향후 남북 관계에 대한 서울 시민의 인식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4.2%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 25.8%보다 높았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는 ‘통일된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가 43.3%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향후 5년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71.8%로 ‘나빠질 것이다’라고 답한 응답자(4.6%)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 향후 5년 이내 가장 시급한 대북정책 1순위에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가 20.9%, ‘남북 간 정치적 신뢰구축’이 11.8%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9.1%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중 가장 우선 시 해야 할 정책으로는 ‘사회문화교류’가 29.3%로 파악됐다. 이어 △보건의 18.6% △경제·산업 17.2% △도시인프라 15.8% 등이다.

아울러 서울시민의 70.2%는 ‘2032년 서울-평양 하계 올림픽 공동 개최’에 찬성했다. 반대는 29.8%에 그쳤다.

뉴스스

이해찬,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 野 공격

바른미래당 “당 대표서 물러나야”

이해찬(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신 장애인’ 발언과 관련해 야당은 29일 “집권 여당의 자질이 의심된다”며 일제히 공격했다. 일부 야당은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여의도 민주당 당사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 축사에서 “정치권에 와서 말하는 것을 보면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 장애인이 많이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장애인에 대한 비하 논란에 충분히 휩싸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 대표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이 대표는 장애인에 대한 뼈뿔어린 인식과 본인의 불품없는 인격으로 인해 국민의 실망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해찬 대표의 부적절한 언사가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여당 대표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힘들다”며 “정치권 수치(羞恥)의 표상인 이해찬 대표는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게 도리”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의 발언을 ‘배설 수준’이라고 표현하면서 “생각은 짧고 말은 가볍고 구설수만 무성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실수는 실수가 아니다”며 “뼈뿔어린 인식과 뼈뿔어진 성품의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났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말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각하다”며 “집권여당 대표라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신중을 기해도 부족할 판인데 귀를 의심할 지경”이라고 했다.

뉴스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경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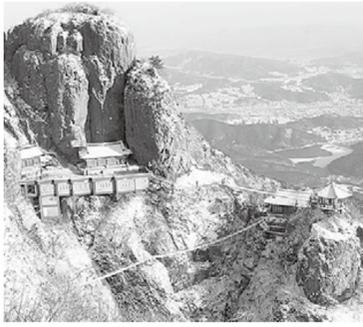
손 끝에서 시작되는 사이버 범죄! 성숙한 디지털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사이버 세상을 위해
얼굴이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법과 질서를 지켜주세요.

“겨울 설경·새해 해돋이·온천여행 경북으로 오세요”



포항 해맞이공원



겨울금오산



상주문장대

경북도, 겨울철 명소 추천

경북도가 지난 28일 겨울에 가볼 만한 곳을 추천했다. 뛰어난 설경을 가진 곳, 휴양하기 좋은 곳, 즐거운 이벤트가 진행되는 곳, 해맞이하기 좋은 곳 등이다.

■산행

△영주 소백산- 주봉인 비로봉이 해발 1439m인 국립공원이다. 소백산 천문대가 있는 연화봉, 옛 산성의 흔적이 남아있는 도솔봉, 신라시대 고찰 회방사와 비로사 등 볼거리가 많으며 연중 6개월 정도 백설로 뒤덮여 있는 비로봉은 한국의 알프스로 불리고 있다.

등반 제1코스(4시간 30분)= 죽령검문소~회방사~연화봉~죽령휴게소.

제2코스(5시간)= 풍기 삼거리~비로사~비로봉~연화봉~회방사~죽령검문소

△상주 속리산- 문장대 높이 1054m의 문장대는 겨울왕국이라 할 만큼 빼어난 설경을 자랑한다. 큰 암석이 하늘 높이 솟아 흰 구름과 맞닿은 듯한 절경을 이루고 있어 운장대(雲藏臺)라고도 한다. 산마루에는 약 5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빈터가 있으며 속리산의 절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추천 코스(2시간 30분)= 화북탐방지원센터~문장대(3.1km)

△봉화 청량산- 해발 870m의 봉우리마다 기암괴석을 이루는 도립공원으로 산 곳곳에 깎아지른 듯한 첨탑벽이 괴상한 모양의 암봉들과 어우러진 모습이 절경이다. 청량한 하늘 아래도 놓칠 수 없다. 해발 800m 지점에 위치한 자란봉과 선학봉을 잇는 길이 90m, 높이 70m로 산 안에 설치된 국내 최대, 최고 현수교량이다.

제1코스(5시간 30분)= 입석~경일봉~자소봉~하늘다리~장인봉~청량폭포

제2코스(3시간)= 입석~청량정사~자소봉~연적고개~청량사~선학정

△칠곡 팔공산- 팔공산 등산코스 가운데 등산 애호가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초보자들도 쉽게 오를 수 있다. 입구 주변에는 진남문이 있고 산 중턱에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가산산성이 등산객들의 시선을 끈다. 겨울에는 모래재, 여러재 등의 입산이 금지되므로 등산코스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추천코스(4시간)= 진남문주차장~천주사터~치기봉~용바위

△울릉 성인봉- 울릉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성인봉은 해발 986.7m이며 성인봉 정상에서 바라보는 수평선이 절경이다.

대원사코스(6시간)= 도동~대원사~팔각정~성인봉~신령수~나리분지~천부

KBS 중계소 코스(6시간)= 도동~KBS울릉중계소~팔각정~성인봉~신령수~나리분지~천부 △구미 금오산- 해발 976m인 구미의 상징인 명산으로 기암괴석, 폭포와 계곡, 구미시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추천코스(1시간 40분)= 관리소~대해폭포~내성~정상

■온천

△울진 백암온천- 무색무취한 53도의 온천수로, 온천욕을 즐기기에 적당할 뿐만 아니라 나트륨, 불소, 칼슘 등 몸에 유익한 각종 성분이 함유돼 만성피부염, 자궁내막염, 동맥경화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울진 덕구 보양온천- 덕구 보양온천은 국내 유일의 자연 용출온천으로 약알칼리성 온천이다. 응봉산 중턱에서 흘러나오는 43도의 온천수는 신경통, 관절염, 피부병, 근육통 등에 효과가 좋다.

△청송 솔기온천- 솔기온천은 소나무의 기운이 서린 온천수라는 뜻으로 온천물이 미끈거려 마치 비단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솔기온천수는 약천으로 피부미용은 물론 신경통, 류마티스성 질환, 근육통, 노화방지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영주 소백산풍기온천- 소백산 풍기온천은 지하 800m 심층에서 분출하는 100% 천연 원수이며 불소가 함유된 알칼리성 온천으로 만성관절염, 신경통, 급속중풍, 동맥경화증, 당뇨병, 만성 기관지염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유황온천이다.

△청도 용암온천- 청도 용암온천은 지하 1008m 암반에서 뿜어져 나오는 천연광천온천수로서 만성피로회복, 면역증강, 신경계통 질환 및 노폐물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또 아쿠아테라피 시설을 갖추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웰빙 온천이기도 하다.

△안동 학가산온천- 학가산온천은 지하암반 700m에서 용출되는 알칼리성 중탄산나트륨형 온천으로 수질이 부드럽고 온열에 의한 진정작용이 있어 혈액순환, 신경통, 불면증, 피로회복 등에 특히 좋다.

■겨울 축제

△포항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축전- '호미곶의 새 빛, 포항의 희망을 깨우다'라는 주제로 31일~내년 1월 1일 호미곶 해맞이광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주요행사로는 전야행사(해오름버스킹 페스티벌, 거리노래방, 마당놀이, 호미곶 쇼 등), 자정행사(해넘이 잔치, 불꽃 쇼 등), 해맞이행사(3.1절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독도수호 플래시몹, 신년메시지, 해군6전단 축하비행 등) 등이 있다. 특별 부대행사로 떡국 나눔, 소원카드 달

기, 아트웍 '호미곶 해맞이', 호미야시장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준비돼 있다.

△영덕 해맞이 축제- 영덕 삼사해상공원에서 매년 경북대중 타종식과 함께 해맞이 축제가 개최돼 있다. 31일 전야행사로 청소년 페스티벌, 지역민 축하공연, 송년음악회 등이 준비돼 있고 자정에 진행되는 타종식에 이어 1월 1일 아침 첫해 맞이 대북공연, 소망풍선 날리기 등이 열린다.

■일출 명소

경북에서의 일출 시간은 7시 30~33분이다. △영양 일월산- 영양은 사계절이 아름답지만 겨울 여행지로 특히 각광받는 곳이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산과 계곡이 있고, 특유의 맛과 향을 지닌 다채로운 산나물들이 입맛을 돋군다. 해와 달이 솟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일월(日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일월산은 경북 내륙에서 가장 먼저 해돋이를 볼 수 있는 영양의 대표 명소다. 화창한 날 일월산(1219m) 일자봉에 오르면 동쪽으로 동해와 울릉도가 보인다. 정상부에는 일자봉과 월자봉이 마주보고 있는데, 가장 높은 일자봉에서 내려다 보는 풍경이 장관이다.

△영천 보현산천문대- 영천의 보현산 천문대는 영천과 청송의 경계를 이루는 보현산 정상(1124m)에 자리한 대형 천문대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천문대로 단양 소백산천문대, 대전 전파천문대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천문대의 하나로 꼽힌다. 보현산천문대에는 1.8m 도야망원경과 태양플레어망원경 등 고가 천체관측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1.8m 도야망원경은 12km 거리에 떨어져 있는 백원짜리 동전도 식별이 가능한 고성능 망원경이다. 현재 20여명의 인원이 상주하면서 천체를 관측하고 있으며 보현산천문대의 일출과 일몰의 광경이 깨끗하고 아름답기로 유명해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일출을 보고자 이곳을 찾고 있다.

△영덕 삼사해상공원- 강구항 남쪽, 동해바다가 시원하게 내려다보이는 곳에 자리잡은 삼사 해상공원은 주위의 경치가 아름다워 주말이면 가족단위로 많이 찾는 공원이다. 경북 10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진 29톤의 경북대중과 공명장, 테마랜드와 방갈로, 해피랜드와 공원 내 식당, 매점 등이 20만 규모의 천하제일 화문석과 인공폭포, 동해바다 경관과 어우러져 가족휴양지로 최고다.

이밖에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뜬다는 포항 호미곶, 세계유일의 수증기 사이로 끝없이 피어오르는 해무가 장관을 이루는 경주 문무대왕릉과 울릉 독도 등이 경북의 대표 일출 명소다. 김용구 기자

사립학교 교원채용 비리 의혹 관련자 수사 의뢰

대구교육청, 재단 교원채용 관련사항 자체 감사 결과 추가로 비위사실 확인해

대구시 동구에 있는 A사립고등학교에서 제기된 교원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대구교육청이 지난 28일 관련자들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학교는 지난 8월 감사원이 실시한 '교원양성 및 임용제도 운영 실태' 감사에서 A고 재단이 2014년 3월 중국어 교과 정규교사를 채용하면서 당초 계획된 수업실연 평가위원(중국어 교과교원)이 아닌 교감이 단독으로 평가해 이사장의 처조카인 응시자에게 최고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면접시험에서 행정실장(이사장 딸)이 면접관으로 참여해 사촌동생인 응시자에게 최고점수를 부여해 결국 정규교사로 채용됐다.

대구교육청은 감사실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고 해당학교 재단의 교원채용 관련

사항을 자체 감사한 결과 추가로 비위사실을 확인했다.

A고 재단은 2013년~2016년까지 정규교사 8명을 채용하면서 이사장의 배우자가 총장으로 있는 B대학 퇴직 교수 6명(채용당시 연령이 45~58세)을 정규교사로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2015년 3월 체육 교과 정규교사 채용 시 필기시험 채점을 당초 채점위원이 아닌 교감이 채점을 했으며 특정 문항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최종 합격하게 했다.

또한 2016년 3월 영어 교과 정규교사를 채용하면서 같은 B대학 영어과를 퇴직하고 A고 정규교사로 채용된 교사가 수업안 작성 및 면접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대학에서 동료교수로 근무했던 응시자에게 최고점수를 부여해 정규교사로 최종 합격하게 했다.

대구교육청은 학교재단과 A고 정규교사 채용 관련자 10명을 정규교사 채용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향후 사립학교 교사채용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뉴스

대구소방, 시 전역 '화재위험경보' 발령

화재예방 경각심 고취 화재 대응 태세 강화

대구소방안전본부(이하 대구소방)가 30일 대구전역에 화재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화재위험경보는 소방기본법 제14조(화재에 관한 위험 경보)에 규정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상기상(異常氣象)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는 때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할 수 있다'에 근거한다.

대구소방은 대구지역에 건조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화재위험경보를 동시 발령했으며 화재위험경보가 발령되면 화재예방 경각심 고취를 위한 시민 홍보를 시행하고 소방관서에서는 화재예방 활동 및 화재 대응 태세를 더욱 강화한다.

이지만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건조한 날



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험지역 내에서의 불법 소각행위 금지 등 화기취급에 각별한 주의와 화재예방 경각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뉴스

'제야의 타종'... 오늘 지하철 증편·연장 운행

대구도시철도, 시민교통편의 제공

올해 마지막 날 대구 도시철도 노선의 막차 운행 시간이 연장된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30일 "오는 31일 도시철도 노선의 열차를 증편해 연장 운행한다"고 밝혔다.

대구국제보습기념공원에서 열리는 '제야의 타종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평일 종착역 도착기준으로 자정까지 운행

하던 도시철도 1·2·3호선을 다음날 새벽까지 운행한다.

1·2호선은 다음날 오전 1시49분, 3호선은 다음날 오전 2시4분까지 연장 운행한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열차도 증편한다. 1·2호선은 상·하행 각각 4회, 3호선은 상·하행 5회 등 모두 26회 증편 운행한다.

환승역인 반월당역은 오전 0시 15분, 0시 35분, 0시 55분, 1시 15분에 상·하행 열차가 승강장에 동시에 도착해 5분 정차한 후 출발한다.

조여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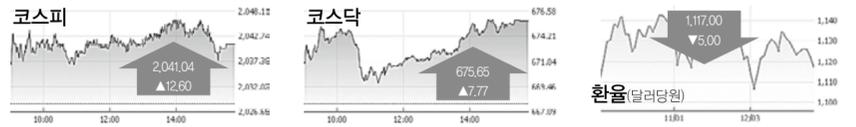
1366 여성긴급전화 1366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여성폭력, 지금 벗어나야 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디지털성범죄·데이트폭력 등으로 고민하거나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폭력 사이버상담(www.women1366.kr)

여성이족부 | 평등을 일상으로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스공, 사회적 경제 식품 클러스터 육성 나선다

사회적 경제조직 공동작업장 '안심팩토리' 개소식 가져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8일 대구 동구에서 사회적 경제 식품 클러스터 공동생산시설인 '안심팩토리'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가스공사 임종국 경영관리부사장, 배기철 대구 동구청장,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 김영애 국장, 대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재경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안심(安心)팩토리는 가스공사가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으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공동작업장을 마련해 식품 관련 사회적 경제 컨소시엄의 상위시장(공공·대형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자활기업 '㈜서구웰푸드', '강북희망협동조합'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날 개소식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급식 및 예

비군 도시락 등 공공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또한 운영수의 일부와 기타 지원금으로 기금을 조성, 취약계층 청소년 식식 지원 등 대구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안심팩토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소셜 비즈니스 롤 모델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경수 기자

대구도시공사, 노사 공동 인권경영현장 선포

기업 인권경영 도입 요구에 노·사 간 협력의지 제고 등 인권경영 체계 구축 마련

대구도시공사는 지난 28일 공사 사옥 3층에서 '노사 공동 인권경영현장 선포식'을 가졌다. 이번 선포식은 기업의 인권경영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노·사 간 협력의지 제고 등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이번 선언을 통해 인권존중과 사람 중심 경영을 핵심으로 하는 노사 상생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인권경영 확산에 기여해나갈 것을 결의했다.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공사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인권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내부 인권경영 전담조직을 꾸려 인권교육 실시,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보호 및 가치증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권경영현장 선포와 더불어 임직원 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규범과 가치판단의 기

준인 '인권경영 시행지침'을 수립해 고객 개인 정보보호, 협력사 우호 관계구축, 환경오염 방지, 공정한 계약체결 등 인권경영 추진과제를 하나둘씩 실천해나간다. 또한,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해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대구도시공사 이종덕 사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절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번 노사공동선언을 통해 인권경영을 선도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정호 노동조합위원장은 "노사가 합심해 인권절제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조여은 기자

대구 백화점업계 앞다퉀 '황금돼지 마케팅' 나서

2019년 기해년(己亥年)을 앞두고 대구지역 백화점업계가 앞 다퉈 황금돼지를 앞세운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지난 28일 롯데백화점 대구점에 따르면 내년 1월 22일까지 지하 2층 와인코너에서 '황금돼지 해' 기념 와인 '울프블라스 골드라벨' 한정판 2종을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호주의 대표적인 와이너리 중 하나인 울프블라스는 와인 병 라벨에 황금색과 돼지 모양 디자인을 적용했다.

대구점은 1월 20일까지 지하 1층 주얼리 코너에서도 '황금돼지해 이색 상품전'을 열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골든듀 매장에서 돼지 문양 순금 골드바(37.5g/100g)와 순금 목걸이, 스톤헨지 매장은 '럭키피그 목걸이(14K)'를 새롭게 선보여 구매 금액별 사은품 증정 행사를 연다.

대구 신세계백화점은 5, 6일 9층 주라지 파크에서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100% 당첨되는 대형 룰렛 이벤트를 열고 골드바와 저금통을 경품으로 제공하며 같은 기간 8층 류안스트리트에선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신년 다짐 손글씨와 타로·사주풀이 등 신년운세를 볼 수 있다.

현대백화점 대구점은 2-20일까지 신년 정기세일 기간 동안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총 400만 규모의 황금돼지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구매금액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구매 영수증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응모하면 된다.

대구백화점은 본점과 프라자점에서 새해 특별 감사품으로 '황금돼지 저금통'을 증정한다.

방문 고객에게 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제작한 테마 기획 제품으로 10만원 이상 구매 시 증정한다. 프라자점 1층 가구 매장 채움에서는 순금 황금돼지를, '골든듀'는 돼지모양 골드바(37.5g)를 새롭게 선보인다.

최경수 기자

인사

□ 화성산업(2019. 1. 1.자)

△상무이사 심명용

대우산업개발 '이안 센트럴D' 청약 대거 몰려



특별공급 제외한 438가구 모집 1순위에만 청약 1만8244건 몰려 최고 청약경쟁률 380.5대 1 전용면적 84㎡C타입서 나와

청약제도 개편 후 대구지역에서 처음 분양한 대우산업개발의 '이안 센트럴D'가 최고 380.5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이 1순위 당해지역에서 청약 마감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대우산업개발이 대구시 동구 신암동 일대에서 선보인 '이안 센트럴D'가 지난 27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총 438가구 모집에 1만8244명이 청약을 접수하면서 평균 41.65대 1, 최고 380.5대 1의 경쟁률로 전 가구 1순위에 마감됐다.

주택형별로는 전체 6개 타입 중 전용 84㎡C타입이 2가구 모집에 당해지역에만 761명이 몰리며 최고 경쟁률인 380.5대 1을 기록했다. 전용 59㎡A타입도 77.4대 1의 경쟁률(11가구, 당해지역 851건 접수)을 기록하며 높은 인기를 끌었다.

그밖에 △전용 84㎡A타입이 292가구 모집에 1만3,815명(당해, 기타포함)이 몰리면 시 가장 많은 청약건수를 기록했고 △전용

59㎡B타입 71대 1(5가구, 당해지역 355건 접수) △전용 84㎡B타입 22.9대 1(45가구, 당해지역 1032건 접수)을 기록했다.

이안 센트럴D 분양관계자는 "청약제도 개편으로 1주택자의 당첨 확률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지역 교통의 허브인 동대구역 인근에 들어서는 뛰어난 입지적 장점으로 소비자들의 호응도가 높았다"며 "더불어 중소형 위주의 구성에 살림작업 등 차별화된 상품을 구성한 것이 수요자 니즈를 충족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동구 신암동 235-1번지 일원에 짓는 '이안 센트럴D'는 지하 2층-지상 22층, 10개 동, 총 1179가구로 조성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59㎡-116㎡, 999세대(일반분양 706세대), 오피스텔은 51㎡-68㎡, 180실(일반분양 155실)로 구성된다. 아파트는 계약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도금 60% 무이자 대출이 적용된다.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며 오피스텔은 전매제한 기간이 없다.

당첨자 발표는 아파트의 경우 내년 1월 7일이며 정당계약은 1월 21-23일 3일간 진행한다.

오피스텔은 내년 2월 2일 당첨자 발표 후, 익일부터인 3-4일 이틀간 계약을 실시한다.(분양문의: 053-214-8900)

최경수 기자

대구백화점, 새해 첫 세일...최대 80% 할인

1월 2-20일까지

대구백화점은 내년 1월 2일부터 20일까지 '새해 첫 the SALE(더 세일)' 행사를 본점 및 프라자점에서 동시에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백화점 측은 우선 11일부터 13일까지 프라자점에서 '해의 유령 브랜드 특별 초대전'을 연다.

핸드백과 지갑, 클러치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몽클레어, 무스너를 등 프리미엄 아우터 균일가전을 동시에 진행한다.

프라자점 영국 수입 명품 브랜드 '올라카일 리'는 세일 기간 전 품목에 대해 최대 60% 고별전 행사를 연다.

플로, 빈폴, 헤이스, 타미힐피거, 렌리코튼, 라코스테 등 브랜드도 20-30% 시즌 마감 행

사를 진행한다.

프라자점 9층 '스메그'는 방장도 진열상품 15% 할인 기획전을, '휘슬러'는 최대 30% 할인을 각각 진행한다.

이밖에 '여성 프리미엄 의류 특별전'을 통해 패딩, 코트, 재킷을 최대 70% 할인 판매하고 '스포츠·아웃도어 겨울상품 최종가전', '여성 톱 디자이너 시즌 클리어런스' 등을 기획해 최대 80% 할인 판매한다.

세일 기간 물품을 구매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구매 횟수에 따라 후원금을 적립해 지역 소아암 환자 후원금으로 전달한다.

대구백화점 관계자는 "2년째 지속적인 후원 행사를 통해 총 4500만원을 적립해 소아암을 앓고 있는 지역 어린이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경수 기자

경북우정청, '우체국 사랑의 동전 모으기'

380개 우체국 창구서 모은 동전 1106만여원 성금 전달 겨울 방학교실 빈곤가정아동 급식·교육·문화·정서 지원

경북지방우정청은 대구·경북지역 380개 우체국 창구를 통해 모은 '우체국 사랑의 동전' 1106만여원을 굿네이버스 희망나눔학교에 지원해 겨울방학기간 중 결식아동급식 및 교육, 문화, 정서지원 사업비로 사용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경북지방우정청은 2013년 1월 굿네이버스와 '우정을 나누는 좋은 이웃' 협약을 체결해 300만원 상당의 학습기자재를 증정했다.

또 같은 해 2월부터 우체국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전 직원의 자율적인 기부활동인 후원나무 캠페인을 펼치는 등 올해포함 6년 동안 총 13회, 1억1900만여원



을 모금해 방학교실 빈곤가정아동을 지원해 오고 있다.

경북지방우정청은 지역 내 홀몸어르신 생활용품 지원, 무료급식,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지원사업, 보육원 아동 지원, 소년소녀가장 생활비 지원 등 연간 5억3000만원 상당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 하고 있다.

최경수 기자





주낙영 경주시장이 논 이음 사료용 벼 생산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경주시, 식량산업계획 우수 자치단체 선정

도내 처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 승인 국비사업 신청자격 획득으로 식량산업 분야 100억 연차 투입 벼 이외 식량작물 재배 기반 확대

경주시는 2023년까지 식량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로드맵을 담은 '경주시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이 경북도내에서 처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국 13개 시군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서면과 현장심사, 발표 심사를 거쳐 경북 경주, 경기 여주, 충남 예산·당진·보령 등 5개 시군

의 종합계획이 최종 승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으로 내년도 식량산업 관련 국비사업의 신청자격을 부여받게 된 경주시는 고품질쌀유통활성화를 위한 RPC, DSC 개보수 지원사업과 들녘경관체육성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해 연차별로 100억여원(미국부본 84억원, 맥류·두류 부분 20억원)을 투자할 기회를 얻게 됐다.

벼 재배면적 1만2025ha로 경북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주시는 내년부터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벼 재배 면적을 줄이면서도 고품질 쌀 생산을 늘리고, 쌀보리, 콩, 팥 등 벼 이외 식량작물 재배기반을 확대해 식량생산의 다각화를 이뤄나갈 예정이다.

특히 경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과 신 경주농협을 주축으로 쌀 생산 조절 및 명품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역 내 작목반을 들녘경관체로 육성해 농가 참여를 확대하고 기계·장비를 비롯한 시설 현대화를 통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계획 승인으로 경주시는 식량작물 분야가 제도약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얻게 됐다"며 "생산에서 판매까지 조직화, 체계화, 규모화 된 체계를 구축해 '행복한 농촌, 함께 누릴 미래 경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 쓰겠다"고 밝혔다.

윤용찬 기자

“내년에는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성주군, 우수한 평가 받아 26개 부문 수상 빛나는 성과

성주군이 올해 중앙 및 도 단위 각종 평가 결과 26개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상사업비 3억3000만원, 포상금 1억1000만원을 확보해 민선7기 첫해의 행정 추진력을 대내외에 널리 인정받았다.

주요수상내역을 보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 최우수 및 도시계획추진 평가 최우수 수상으로 상사업비 3억원과 포상금 700만원을 받아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해 지역 발전에 기여했으며 한국지방자치경쟁력 지수평가 경영활동부분 전국 3위, 도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우수 등 행정추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성주군에 맞는 규제특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참여산업이 농가소득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중소기업기업부 2018년 지역특구 운영성과(성주참여산업특구) 경북 1위를 시작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시책평가 최우수 및 농업중앙회 연합마케팅사업 종합평가회 지자체 협력사업 최우수, 도 농식품수출정책 평가·채소특작육성시책 평가·농촌지도사업 종합 평가 등 7개 농업분야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아 우리군이 선진농업의 선도도시로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됐다.

그 외에도 복지·보건·환경 분야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최우수, 도치매관리사업 최우수, 3년 연속 친환경농산물 우수수상하는 한편,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등 새마을운동전반에 대해 평가한 도새마을 운동 시군평가 최우수, 행정안전부 본인서명확인서 발급률 우수기관 선정 등 행정 전반에 걸쳐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었다.

박노균 기자

포항시-(주)프로그린테크 400억원 규모 MOU체결

(주)프로그린테크 추가 투자 유치 철강일변도의 산업구조 다변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기대

포항시는 지난 28일 투자유치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화장품 첨가제 제조 기업인 (주)프로그린테크와 4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주)프로그린테크는 한결관리공단 내 2010년 설립돼 2016년 포항시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 2017년 경북 프라이드 100대 기업에 선정된 지역의 유망기업이다.

이번 추가 투자는 마스크 팩 및 물티슈 등 기능성 화장품 시장의 급성장과 기존 화장품 보존제로 사용되는 63종의 파라벤 계열 첨가제가 미국 FDA 발암 물질로 규정되면서 친환경 화장품 제품(HDO)으로 급속하게 전환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특히, 국내기업으로는 (주)프로그린테크를 제외한 친환경 화장품 첨가제의 자체 생산시스템을 보유한 제조사는 거의 없는 상황이며 해외에는 독일 및 일본 2개사만이 제조하고 있는 점에서 해당 제품의 국산화에 기여하는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추가 투자를 통해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활력을 불어넣고 2020년까지 50



이강덕(왼쪽) 포항시장과 김대영 (주)프로그린테크 대표가 4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다.

명에 달하는 지역 고용 창출이 예상되므로, 이는 최근 전국적인 취업 한파에 속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날 체결식에 참석한 김대영 (주)프로그린테크 대표는 "기술 혁신을 통해 지역 고용창출 등 포항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이강덕 포항시장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투자"라며 "올해 포항시가 경북도 투자유치 부문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만큼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에 힘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포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동진 기자

칠곡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추진 협약 체결

칠곡군, 축협, 농협, 축산생산자단체 상호간 원활한 업무추진 다짐



칠곡군은 지난 29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과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축협 및 축산단체연합회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선기 군수, 장재호 지역농협운영협의회장(가산농협장), 김영호 구미칠곡축산협동조합장, 류경호 칠곡군축산단체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칠곡군, 축협, 농협, 축산생산자단체 상호간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원

활한 업무추진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협약 체결하게 됐다.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퇴비화 기준 중 부숙도 기준은 모든 축종에 대해 2020년 3월 25일 부터, 액비화 기준 중 부숙도 기준은 2019년 3월 25일 부터(단, 액비에 대해서는 허가대상 배출시설 설치자,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자원화시설은 2017.3.25.부터 시행) 각각 전면 적용되나 칠곡군 축산농가에 개별 설치된 분뇨처리시설에서는 강화된 부숙도 기준에 맞는 퇴·액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용량이 부족한 상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칠곡군에서는 국비지원 공모사업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추진을 목표로 제시하고,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거쳐 지난 9월 행정지원단을 구성(공무원 10명)했으며 10월과 11월에는 축협·농협칠곡군지부·지역농협운영협의회·축산단체·행정 등의 업무협의를 통해 7개 지역농협과 축산단체 연합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구미칠곡축산협동조합을 사업시행주체로 해 추진할 것을 잠정 협의하고 금번 협약체결에 이르렀다.

칠곡군은 협약이 이뤄짐에 따라 축협·농협·축산생산자단체·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해 실무작업에 착수함으로써 사업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1일 99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총 사업비 약 50억원(국비 40%, 지방비 30%, 용자 30%,부지확보는 별도 자부담) 규모의 대형 국비보조 공모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3단계 평가를 거쳐 선정되게 된다.

한편 칠곡군의 가축사육 규모는 한·우육 14천두, 젖소 872두, 돼지 28천두, 육계 917천수, 산란계 1025천수 정도이며 연간 23만톤의 가축분뇨가 발생되고 있다. 군에서는 공동자원화시설을 통해 연간 2만3000톤 처리를 목표로 세우고 있으며 이는 총발생량의 23만톤의 10%정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향후, 시설이 완공돼 본격 가동되면 지역 축산농가의 숙원사업인 가축분뇨처리 문제 해결과 함께 고질적인 악취 민원 해소도 가능하고, 고품질 퇴·액비 공급으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노균 기자

월성원자력본부, 노인회, 유도회 방문 인사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 26일 동경주지역(양남면, 양북면, 감포읍)의 원로로서 지역을 오랫동안 지켜 오신 노인회, 유도회를 방문해 인사를 전하고 소정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월성본부는 지난해부터 연말을 맞아 주변 지역 노인회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역에 유

교문화를 수호하고 있는 또 다른 원로모임인 유도회도 함께 방문했다.

부성준 대외협력처장과 직원들은 양북면 노인회관을 시작으로 양북면 유도회관, 감포읍 노인회관, 양남면 노인회관, 양남면 유도회관 순으로 방문했고, 방문한 모든 회관마다 약 100만원 상당의 생필품(쌀, 라면, 커피 등)을 전달했다.

김영천 감포읍 노인회장은 "매년 월성본부에서 생필품을 전달하고 어른들의 안부를 물어주어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

부성준 대외협력처장은 "지역을 터전으로 살아 오셨동안 믿음으로 원전을 지켜보며 살아오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리며 갈수록 추워지는 날씨에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게 겨울을 나시길 바랍니다" 말했다.

윤용찬 기자

대한적십자사, 영덕군 취약계층 310세대 사랑의 방한용품 지원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는 지난 27일 영덕군의 취약계층 310세대에 5만원 상당의 방한용품(차림이불, 패드 세트)을 전달했다.

경북적십자사 동부봉사관 공민배 과장은 "추운 겨울을 맞아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울진·성주, 황금돼지띠의 해 소망과 행복 나뉘

울진군 31일 타종식, 1일 해맞이 성주군, 새해 첫날 가야산 해맞이

울진군과 성주군은 무술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야의 타종식과 기해년 새해를 맞는 해맞이 행사를 31일과 다음날 1일에 각각 개최한다.

■울진군 31일 타종식 등 해맞이 행사 다채

울진군은 '울진대중 2018 제야의 타종식 행사'를 근남면 망양정 해맞이공원에서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밤 10시 30분부터 군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길놀이 행사로 시작하여 모듬북 및 무용·민요공연, 지역가수 공연과 함께 신년메세지 전달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타종행사는 기관단체장, 출향인, 군민 및 관광객 등이 화합과 희망, 소망을 빌며 타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될 계획이며 식후행사로 화려한 불꽃놀이 연출을 통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예정이다.

이어서, 다음날 1일에는 군민 및 관광객들과 함께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해맞이 행사가 근남면 망양정해수욕장에서 오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이날 행사는 타악퍼포먼스 공연, 해맞이 축시 낭송 및 새해맞이 노래 등 새해 아침을 여는 소리를 시작으로 소망풍선 날리기, 소원지르기, 소망지 태우기, 무로 떡국 나눔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전찬걸 군수는 "저무는 한해를 마무리하고

받아오는 새해를 맞아 소원을 빌고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군민과 관광객이 화합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주군, 성주가야산 해맞이 행사 개최

성주군은 2019년 성주가야산 해맞이 행사를 새해 1일, 가야산국립공원 내 역사산화공원 상아담마당에서 주민 및 기관단체장 등 3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군민을 맞는 길놀이, 새벽을 여는 밴드공연, 대북공연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메세지 및 축시낭독, 해맞이 떡 만들기 순으로 진행되며 군민과 함께하는 대동놀이로 행사의 절정을 이룬다.

부대행사는 북주머니 포토존과 LED 풍선길, 새해염원 황금돼지 현수막 퍼포먼스, 소원지 쓰기 등으로 군민과 관광객이 하나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자원봉사단체에서는 추운날씨에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희망의 2019인분 북떡국, 갱시기, 어묵, 차, 떡 등을 나눠 주며 성주경찰서 지휘하에 성주군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 모범안전자회는 원활한 교통통행과 주차관리를 위해 사전에 합동회의와 현장점검으로 행사당일 행사장 주변의 교통통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병환 군수는 "황금돼지띠의 해는 재물운과 행복운을 가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가야산 일출을 보며 새해 희망과 소망을 가슴 가득히 담아가셔서 기해년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성욱·박재성 기자

경산 기해년 새해 희망찬 새출발~

2019년 해맞이 행사 개최

경산시에서는 1월 1일 오전 6시 40분부터 대구한의대학교 한학촌 및 대각정 일원에서 '2019 기해년(己亥年) 해맞이 행사'가 열린다. 경산문화원과 대구한의대학교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행사는 경북도 무형문화재 제41호 보인농악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시민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경산시장의 신년 메시지 낭독과 신년맞이 타종, 모든 이에게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LED꽃불 소원기원, 희망의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추위에 언 몸을 따뜻하게 녹여줄 한방차 시음과 떡국나눔 행사도 진행된다. 행사 관계자는 "지역의 해맞이 명소인 대구한의대학교에서 개최하는 이번 해맞이 행사가 지난해의 어둠은 희망의 빛으로 밝히고, 짙은 안개는 행복 웃음으로 걷어내길 바라며 2019년 새해는 서로 화합하며 풍요로움이 가득한 한해가 되길 기원드린다"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이날 대구한의대학교 외에 진람읍 금박산, 남부동 백자산에서도 2019년 해맞이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박준범 기자

박재성 청도군의원, '도 의정봉사대상' 수상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서 날카로운 지적, 합리적 대안 제시 등 현장중심 의정 펼쳐



청도군의원 박재성 운영행정위원장은 지난 28일 경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하는 '경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고 30

일 밝혔다. 경북도 의정봉사대상은 남다른 열정과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주민 화합에 기여한 우수 기초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대상 수상한 박 위원장은 평소 쌓아온 의정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18년도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청도군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재성 운영행정위원장은 "경북도 의정봉사대상은 청도군의회의 동료의원 전체를 대신해 수상한 것으로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벽을 허물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발로 뛰는 지역의 일꾼이 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조운행 기자

영천시, 2018년 경북 환경상 '대상' 수상

3년 연속 기관 표창 수상 '환경 우수시'로 자리매김

영천시는 지난 28일 경북도 환경분야 평가 결과 2018년 경북도 환경상 '대賞'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경북 환경상은 환경보전 실천 분위기 확산 및 도민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복지 Green-경북'의 실현을 위해 정부합동평가 자료와 시·군 특수시책, 우수사례 등 다양한 분야의 추진 실적을 반영해 환경보전 활동에 공이 많은 시·군을 대상으로



영천시는 지난 28일 경북도 환경분야 평가 결과 2018년 경북도 환경상 '대賞'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검토해 영천시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시는 환경분야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녹색제품 구매비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적극성 및 달성률,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사업장 환경법령 위반율의 5가지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또한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로 꿈에그린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온도 저감 및 기후변화 대책 인프라 구축, 녹색생활실천, 그린리더 양성사업을 추진했으며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대기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알릴으로써 대기오염도 상시측정 체계를 구축하고, 급호강 수질개선을 위해 농도도 비점오염물질을 저감 처리해 하천으로 방류하는 등 환경보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부분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최기문 시장은 "환경보전 마인드 제고와 녹색생활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해 환경정책 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앞으로도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은하 기자

고령군, 2019 대가야체험축제 기획보고회 가져

내년 4월 개최 예정

고령군은 지난 27일 고령군청 대가야홀에서 광용환 고령군수, 이상용 (사)고령군관광협의회장, 군의원, 실과단소장·읍면장, (사)고령군관광협의회 이·감사, (사)고령군종합자원봉사센터, 고령문화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4월에 개최 예정인 2019 대가야체험축제 기획보고회를 가졌다. '대가야의 화합'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2019 대가야체험축제는 현정부 국정과제인 가야사

복원을 바탕으로 앞으로 고령의 주요 거점관광지가 될 대가야생태문화촌에서 축제 개막식과 개장식을 함께 할 계획이며 전체 축제장이 대가야의 과거·현재·미래 모습으로 구성돼 한편의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것임을 발표했다. 광용환 고령군수는 "대가야체험축제를 고령군관광협의회에서 주관하게 되면서 나날이 발전하고 체계화되고 있다. 2019 대가야체험축제가 글로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축제를 대·외적으로 홍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시 공평삼거리 회전교차로 개통

문경시는 흥덕 회전교차로와 영순 의곡 회전교차로에 이어 공평삼거리에 회전교차로를 개통했다.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총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공평 회전교차로를 설치했으며 회전교차로를 이용할 때는 △중앙에 작은 원형섬을 두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통행 △진입 전 서행 △진입 시 좌

측 방향지시등 켜기 △진입 차량 우선 통행 등 올바른 통행 방법을 숙지해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공평회전교차로 설치로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물론이고 추후 코야루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 시 교통소통의 원활한 흐름을 기대 한다"라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구미국가5단지 기업 유치 다방면 모색



경북도·구미시, 국가5단지 분양활성화 긴급 대책회의 대기업 투자유치 방안 논의

경북도와 구미시는 지난 27일 오후 구미시청 3층 상환실에서 이철우 경북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김봉재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을 비롯해 지역 경제관련 기관·단체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5단지 분양활성화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미 국가5단지의 분양활성화를 위한 분양대책을 논의하고, SK하이닉스의 120조원에 이르는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투자계획에 따라, 지역 내 대기업을 투자방안도 함께 협의했다.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국가5단지(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구미시 산동면·해평면 일원 934만㎡ 부지에 1조7000억원을 투입해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인 완료되면 약 10조원의 부가가치와 2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대단위 국책사업이다. 현재 국가5단지 1단계 공정률은 97%이며 전체 분양률이 25%(산업시설 용지 22%)로 산업시설 용지는 193만㎡중 도래이 첨단소재 등 10개사, 1개 센터에 42만4000㎡를 분양했다. 한편 반도체 글로벌 시장규모는 2016년 3253억달러에서 2018년 4273억달러로 해마다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들이 다양한 산업에 확대·적용되면 반도체의 수요와 발전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전체 수출액의 20%이상의 차지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반도체 산업 개발정책과 반도체 산업의 수출호조에 따라 기업들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이러한 반도체 생산설비에 대한 대기업(SK)의 대규모 투자가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한 지방

균형발전차원의 투자유치 전략을 논의했다. 아울러, 반도체용 웨이퍼를 생산하는 지역 분사 소재 대기업 등의 증설투자를 촉진하고 앵커기업을 국가5단지에 유치하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했다. 실무회의에서는 국가5단지의 분양가가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분양가가 높아 분양이 저조하다고 판단하고, 분양가 인하 방안을 비롯한 분양대금 납부조건 완화, 입주업체 확대, 임대산업용지 조기공급, 국가5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 다양한 분양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장세용 시장은 "구미 국가5단지가 내년이면 5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내륙최대의 국가5단지라는 명성에 걸맞게 기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와 더불어 국가5단지 분양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국가적 차원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해 구미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김천시, 시민안전 다양한 시책 빛났다

도민안전 시책평가 '대상' 수상 지역안전 인프라개선, 안전문화운동 확산 안전사고 예방 큰 기여 자연재난 사전대책 철저히 수립

김천시가 경북도에서 실시한 2018년 재난안전시책 시·군평가에서 2016년도에 이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도민안전 시책평가는 경북도 재난안전실에서 2016년부터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에도 안전정책, 사회재난 예방, 자연재난 대응력 강화분야 3개분야 26개 지표 및 우수시책에 대해 시·군 평가를 실시했다.

김천시는 평가지표 전 부문에 걸쳐 상위등급을 받았을 뿐 아니라, 특히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의 날 운영, 재난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공직자 안보교육 실적과 우수시책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2016년 도부터 3년동안 추진한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사업을 통해 교통, 범죄, 화재예방 등 지역 안전 인프라개선과 안전문화운동으로 확산해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점과 자연재난에 대비한 사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충섭 시장은 "시민안전에 대한 시책평가에서 우리시가 대상을 차지한 것은 그 어떤 상보다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안전재난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 역량을 강화해 안전한 김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은진 기자

상주시장학회,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 가져

대학교 나래장학생 등 총 109명 장학·포상금 총 9990만원 지급

지역인재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가 지난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하반기 장학생과 우수 교사로 선발된 109명에 대해 장학증서와 포상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에서 대학교 나래장학생 64명, 특기장학생 28명,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특별장학생 10명, 우수교사 7명 등 총 109명에게 모두 9990만원의 장학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선발된 학생 등은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과 체육, 예능, 기능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학생 및 단체, 경북대 상주캠퍼스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 학업과 특기 신장 및 연구에 탁월한 실적을 거둔 교사 등이다. 이들은 교육장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난달 14일 상주시장학회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선발됐다. 황천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인재가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학금 수령을 계기로 학업과 재능향상에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태호 기자

구미시, '경북도 투자유치대상' 2개분야 최우수

기업체부문 도레이BSF코리아 공무원부문 투자통상과 김대운 각각 최우수상 수상 영예 안겨

구미시는 지난 27일 경북도청 다목적홀 대공연장에서 개최된 '2018년 경북도 투자유치대상' 시상식에서 그간의 투자유치 공적을 인정받아 2개 분야에서 최우수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경북도투자유치대상'은 시·군, 기업체, 공무원 등 3개 부문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앞장서고 투자유치 관련 공적에 대한 인정으로서 시상하는 명예로운 상이다. 기업체 부문에서는 이차전지용 분리막을 생산하는 도레이BSF코리아(유)가 투자유치 최우수 수상기업으로 선정됐다. 도레이BSF코리아(유)는 구미국가4산업단지에 위치해 있으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3600억원의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주기적 한일활동, 하천주변 환경정화 활동 등 지역봉사활동에도 노력하는 모범기업이다. 또한 투자유치 최우수 공무원에 선정된 김대운 구미시 투자유치팀장은 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국내 및 외국기업 19개사, 2조8519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으며 국내의 타 기업 투자유치, 투자유치설명회, 5단지현장



투어, 유치기업 사후관리지원 등 다양한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해 왔다. 현재 구미국가산업단지는 도래이의 탄소섬유, 이차전지 분리막을 비롯해 자동차 전자장치, 전자 의료기기 등 소재부품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개편되고 있어 국내의 기업의 새로운 투자지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올해에는 일본, 독일, 스위스 등 부품소재강국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했고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민선7기(2018년 7월-) 이후 85개사, 8869억원을 포함해 올해 총 195개사, 1조6153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뤘다. 이처럼 구미시의 높은 투자유치 성과의 비결은 다양한 기업별 데이터 베이스 구축으로 맞춤형 사후관리 및 신속한 기업에로사할 처리를 통한 신뢰구축에서 비롯됐으며 이는 국내외 첨단산업 중심 기업유치와 실질적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은진 기자



29일 평창동계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경북도체육회 소속 여자 컬링팀 '팀킴'이 훈련중이다. 1개월여 만에 의성컬링훈련원에서 아이스훈련을 하고 있다.

돌아온 팀킴, 아이스훈련 '구슬땀'

의성컬링훈련원서 훈련 재개 남자팀5·더블믹스팀2명도 함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 저희가 갖고 있는 역량을 잘 발휘해서 동계체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9일 의성컬링훈련원에 ‘팀킴’이 돌아왔다. ‘갑질 파문’ 이후 방질관리사(아이스메이커) 사적으로 의성컬링훈련원이 폐쇄된지 1개월여 만이다. ‘팀킴’의 주장이자 맏언니 김은정 선수는 그간 겪었던 팀 고생 대신 앞으로 팀킴을 잘 이끌어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에 훈련복 차림으로 훈련원에 들어선 선수들은 차분한 모습으로 2시간 동안 아이스 훈련을 실시했다.

그동안 의성컬링훈련원이 폐쇄되면서 선수들은 대구시내 모처에서 체력훈련만 실시해왔다. ‘팀킴’ 선수들은 주장 김은정 선수의 조용한 지도 아래 스톤을 던지고 브러쉬로 빙판을 스윙하며 굳었던 몸을 풀었다. 이날 훈련에는 ‘팀킴’ 5명을 비롯해 경북도체육회 소속 남자팀 5명, 더블믹스팀 2명 등 총 12명이 참가해 구슬땀을 흘렸다. ‘갑질 파문’ 이후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이 “컬링계에서 가족이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날 훈련은 임명섭 남자팀 코치가 진행했다. 앞으로 새로운 감독이 임명되기 전까지 임코치가 팀킴 등 모든 팀들을 관장해 훈련을 진행할 방침이다.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날 컬링훈련원을 방문한 김주수 의성군수는 “선수들이 마음

놓고 훈련할 수 있도록 훈련원이 개장돼 다행이다”라며 “선수들이 훈련을 잘해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재 중인 방질관리사 문제와 관련, “한시적으로 자원봉사자로 대체했지만 추후 아이스메이커를 자체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방질관리사 양성훈련 등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수들의 훈련을 지켜보던 이종연 경북도체육회 전문체육팀장은 “한동안 얼음 훈련을 못했던 선수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다”며 선수들에게 다가갈 격려했다. 이어 “내분도 있었지만 팀원들 마음도 안정시키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경북을 넘어 전국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예천군, 올해 지방세목표 초과달성

11월말 606억...목표액 보다 22%초과 꾸준한 부동산 거래·자동차등록 증가

예천군은 도청 신도시 개발에 따른 꾸준한 부동산 거래와 인구유입으로 11월 말 현재 606억원(군세 236억, 도세 370억)을 징수, 군의 올해 지방세수 목표액 495억원(군세 231억, 도세 264억)보다 22%를 초과달성 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회복 둔화로 전국 지자체의 세수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예천군은 도청신도시 1차 사업 완료에 따른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 및 상가분양 등 꾸준한 부동산 거래와 전입에 따른 자동차등록 증가로 지방세 목표액이 초과 달성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매년 누적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정

리를 위해 변호관 합동영지팀을 구성해 매주 수요일 '변호관 영지의 날' 운영하고, 채권압류 등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한 것도 세수를 높인 배경이 되고 있다. 특히,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납기 3일전 문자발송 등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자진신고납부 안내,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강화,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 활동을 통한 누락세원 발굴, 성실납세자 추첨을 통한 온천입욕권 제공 등 세금 납부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였다. 예천군 관계자는 “2019년에는 납세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자동이체신청을 적극홍보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징수비용 절감과 납세자 편의증진을 도모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현 기자

생생한 아이디어로 창의적인 행정문화 정착시킨다

영주시, 소백힐링 연구회 성과보고회

영주시는 지난 27일 시청 강당에서 '2018년 영주 소백힐링 연구회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영주시가 현장에서 발굴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운영한 소백힐링 연구회는 '민원 콜센터 기능 확대'를 비롯해 각종 제안을 정책으로 실현시키며 영주시 정책개발의 핵심 브레인 기능을 수행해왔다. 소백힐링 연구회가 출범한 후 3년 연속 개최하는 이번 보고회에서는 영주시 직원들이 결성한 정책동아리가 한 해 동안 치열하게 연구한 성과를 선보였다. 감정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한 '상상공장'부터 지방소멸 위기를 맞아 인구감소 대책을 제시한 'Lucky 7'의 발표에 이르기까지 총 6팀의 정책동아리는 시정의 전 분야에 걸쳐 발전전략을 제시하였으며, 각 팀 발표자의 열정적인 프레젠테이션은 한겨울의 추위마저 잊게 했다. 연구 성과 평가는 현장평가단 평균점수 60%와 심사위원 평균점수 40%를 합산하여 이뤄졌고, 무선투표시스템을 도입해 6팀의 발



표가 끝날 때까지 200명의 현장평가단원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평가에 임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이번 성과보고회는 그동안 연구회원들이 본인의 업무로 바쁜 가운데도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거둔 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였다고 생각한다”며 “제시된 아이디어가 보람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정 발전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영주시는 일하면서 연구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의적인 행정문화를 정착시켜 현장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영주 소백힐링 연구회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전성기 기자

예천군, 역동적 군정추진 빛나는 결실로...

중앙부처 등 기관표창 48건 수상 상사업비 45억3700만원 확보



예천군이 민원행정평가대회에서 1위 수상을 했다.

예천군이 올 한해 동안 중앙부처, 경북도 등 외부기관 평가에서 종합 대상과 최우수 등 총 48차례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며 상사업비 45억3700만원을 확보했다. 이는 민선7기 출범 후 경북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김학동 군수를 중심으로 전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물로서 지난해 39건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였다. 예천군은 경북도 농정평가 8년 연속 수상, 경북도 제안제도 운영평가 7년 연속 수상, 경북도 투자유치 대상 4년 연속 수상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아 경북도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에서도 최우수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공모전에서 전국 2위에 입상해 43억원을 추가 인센티브로 확보했으며, 2018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

등급을 받아 경북에서 유일하게 3년간 2등급 이상을 유지한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특히,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아 농업 및 문화 시설 확충, 주민생활 여건개선, 노인복지 향상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이러한 결실은 평가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등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실적을 거양한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한 결과이다. 이종현 기획감사실장은 “본격적인 민선7기가 시작되는 2019년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전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경북의 중심도시에 걸맞은 군정을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의성군농기센터, 농촌진흥사업 전국 '최우수'

농업인 복지향상·소득증대 기여

의성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7일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한 2018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최우수기관상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와 기술보급사업 종합만족도, 예산집행 및 증감실적, 중앙·지방간 협업, 맞춤형 기술정보 지원, 현장애로기술 발굴, 농산물가공품 상품화, 직원 역량개발, 농촌진흥사업 조직·제도 운영, 과학영농시설 운영, 재해대응실적 등 총 11개 항목을 종합평가해서 얻어낸 결과로 격변하는 시대에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모든사업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성군의 군정발전 방향과 농업·농촌 발전방향을 접목시켜 농업인 복지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의성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교육과 농업

인조직체 육성 및 소득작물 새기술보급과 농촌자원분야에서 성과를 거뒀고, 특히 교육부문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교육관련 시스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해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잘한 부분은 활성화하여 추진한 결과 농업대학 운영부서는 전국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지난 19일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사람이 중심인 시대에 교육과 인력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중앙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함을 축하하며, 앞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농업의 다각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인과 소통하는 현장농정으로 의성군의 미래농업을 선도하도록 노력 할 것을 당부했다. 박재성 기자

안동시 지방재정확대로 1억5천만원 인센티브

행안부 평가 우수 자치단체 선정 일자리 창출 예산 반영 좋은 평가

안동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방재정확대 평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돼 1억 50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번 평가는 고용상황 악화 등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일자리 창출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방재정 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17개 시도뿐만 아니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등 243개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역과 시부, 군부, 구청 등으로 구분해서 실시했다. 시부도 △1조 4000억원 이상 △9000억~1조 4000억원 미만 △6400억~9000억원 미만 △6400억원 미만 등 재원규모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로 최우수와 우수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와 추경예산 규모 확대, 일자리 예산확대, 자치단체 노력도 등 3개 분야 7개 평가지표로 우열을 가렸다.

안동시는 예산규모 9000억원 이상 1조 4000억원 미만인 시부 (나)그룹에 속해 군산시에 이어 익산시와 함께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올해 3월과 8월, 1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 예산 등 국가 정책기조에 신속히 따랐다. 추경예산 규모도 꾸준히 늘렸다. 1회 추경에서 본예산의 6.1%인 62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2회 추경 640억원(5.9%), 3회 추경 420억원(3.7%) 등 본예산보다 1680억원이 늘어나 최종예산은 1조 1880억원에 달했다.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전통시장 내 청년창업지원을 비롯해 투자를 다양화했다. 스마을기업 육성과 문화관광해설사 등 공공부문 25개 분야를 비롯해 △산학협력선도 전문대학 육성 등 직업능력 개발지원, 지역대학 청년창업가 지원, △도시청년 시골과전체 등 농촌지역 청년창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예산 반영이 좋은 평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규 기자

청송군, 새해 군민화합 해맞이 청송양수발전소 상부댐에서

청송군은 2019년 1월 1일 오전 6시부터 청송양수발전소 상부댐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청송 건설을 기원하는 '2019 새해 군민화합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파천농수산악회가 주최·주관하는 해맞이행사는 2000여명의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예정이다. 새해 소망 성취를 기원하는 소원소지 작성 및 소원소지 올리기, 초정가수 공연, 신년메시지 전달, 희망 비둘기풍선 날리기, 세시음식(떡국) 나누기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된다. 또한, 오전 7시 37분경 일출 후 행사장 특설 제단에서는 군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시산제도 이어질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보다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 새해 덕담을 나누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뜻깊은 해맞이 행사가 되길 기원하며, 기해년 새해에는 군민 모두에게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원 드린다”고 말했다. 김용규 기자

“겨울방학에 영어 자신감UP 실력 쑥쑥 키워요”

영양군,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초등학생 55명... 3주간 진행

영양군은 겨울방학을 맞아 원어민과 함께하는 '어린이 영어캠프'를 운영한다. 영양군은 관내 초등학생 3~6학년 55명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대구경북영어마을에서 오는부터 3주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관내 어린이들에게 영어권 문화를 접하면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인재 양성과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캠프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실제 학교의 정규과목들을 영어와 융합한 수업을 듣고 학습생활을 하면서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국



제적인 감각을 키우는 것은 물론 해외 여행객의 수효처럼 고효율의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영어캠프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영어권문화에 대한 이해력, 영어에 대한 자신감 향상을 통해 영어공부에 밀착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권용동 기자

원추의 오늘 운세 (음력 11월 25일 정유)

2, 8, 12월생은 마음도 몸도 지친 상태로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자신을 한탄만 하지 말라. 세상일이 모두 내 뜻대로 된다면 불행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7, 8, 9월생은 떠날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마음껏 최선을 다하면 주위 찬사 소리가 들리겠다.

성급히 행동하기보다 충실히 관리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3, 5, 8, 11월생은 욕심을 버리고 더욱더 노력해 자기 수양하라. 7, 8, 9월생은 돈을 속에서 벗어나 가정을 지키라. 순간 실수를 저지르면 평생 후회한다.

권위로 가정을 다스리려고 하면 화목하기보다 침묵뿐인 것이다. 그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하기 전에 내가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라. 자존심을 버리고 대화하는 것이 좋겠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다. 약점이 맞지 않아 안행할 수도 있는 법. 고집부리지 말고 서로 이해하는 미덕을 기르라. 옷을 입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 입는 것이라는 이치를 알아야 한다. 2, 7, 10월생은 상대편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라.

자녀에게만 관심을 두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더 큰 관심을 가지라. 3, 5, 8, 11월생 짝사랑은 정말 힘든 일이다. 때아리 없는 사랑은 애만 태우는 격. 서, 북쪽 사람과 의논하라.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모든 균형이 깨지게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침착하게 처신하라. 세상일이 생각한 것처럼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때가 올 테니 기다려라. 사, 오, 8월생은 태도를 겸손히 하면 큰 행운이 따른다.

남도 내 마음과 같은 줄 알고 보증을 서 주거나 금전 거래하면 피해를 볼 수 있다. 신중을 기하라. 7, 8, 9월생은 사랑을 조건 없이 해야 한다. 2, 4, 7월생은 연인이 사랑에 슬슬 싫증이 날 때. 더욱더 신경 쓰라.

사람이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가족과 힘을 모으면 해결할 수 있다. 6, 8, 11월생은 가정 화목을 위해 현명하게 판단하라. 나, 사, 8월생은 용, 개, 양띠와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침착해 야 극복할 수 있다. 7, 8, 9월생은 내 문제를 남의 탓도 하지 말고 피하려 하지 말고, 지혜롭게 인내하며 문제점을 풀라. 1, 5, 9월생은 자신 있는 여유가 요구된다. 서, 북쪽 길.

부부 사이도 평등한 위치에서 협조가 이뤄져야 매사 손조름이 풀릴 수 있다. 3, 5, 8, 12월생은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조건을 내걸고 대한다면 진실한 마음을 받을 수 없음을 알라. 사, 오, 8월생은 인내하며 문제점을 풀어야 할 때.

하는 일에 만족하고 행복해지는 사람은 없다. 1, 3, 7, 9월생은 항상 다른 것을 동경하면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려고 한다. 그러나 손조름지만 없다. 7, 8, 9월생은 남녀 관계로 구설이 들리니 항상 언행에 조심하라.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으나 모두 충족할 수는 없다. 8, 9, 12월생은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수리임을 알라. 1, 5, 8월생은 지금 하는 일에 불만을 품지 말고 충실히 행할 때 뿌린 씨앗 거둬들일 날만 남는다.

강한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정주평 편집인-편집국장 김성용 주간 김재열 대구시 동대구로 85길 60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최초 일간신문 '민간조보' 道유형문화재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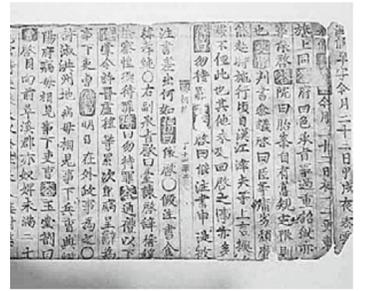
영천의 숨겨진 보물

독일 '아이코메네 차이퐁'보다 80년 빨라, 1577년 만들어져 일반 백성들이 구독한 것으로 알려져

영천에서 세계 최초의 신문으로 평가되는 조선시대 '민간조보'가 도 유형문화재 제521호로 지정됐다. 지금까지 1650년 독일에서 발행된 '아이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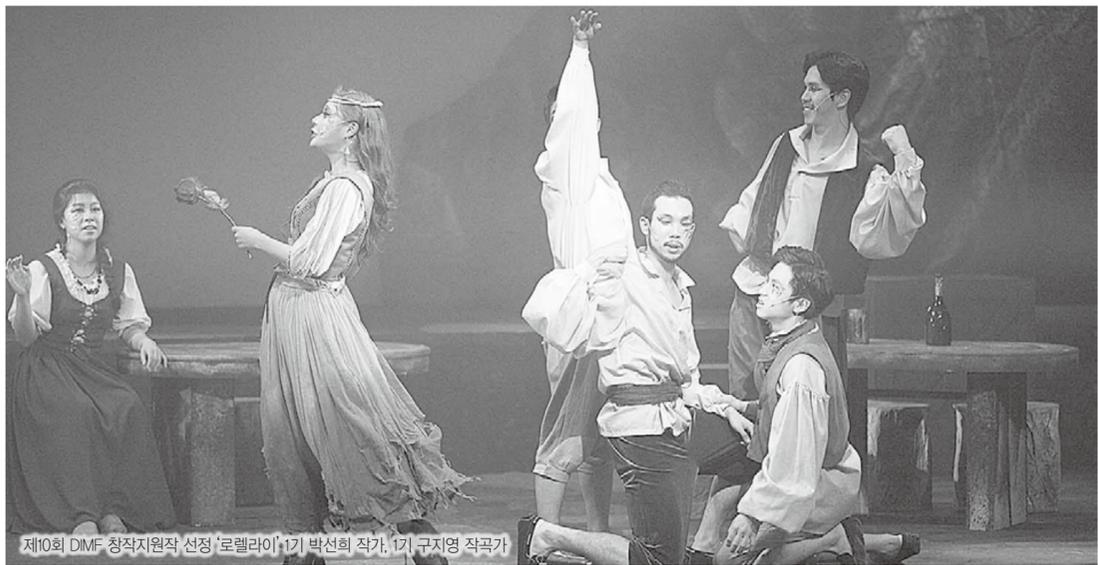
메네 차이퐁(Einkommende Zeitung)'이 세계 최초의 인간 신문으로 알려져 있다. '민간조보'는 1577년(선조10년)에 발행되어보다 80년 앞선다. '조보'는 왕과 사대부의 전용물로, 일반 백성은 접근할 수 없었다. 대신, 1577년 '민간조보'가 만들어져 일반 백성들이 구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정의 인사발령부터 각종 사건사고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1577년 음력 11월 28일 선조가 우연히 '민간조보'를 발견하고

크게 분노해, 발행 석 달 만에 폐간시키고 조보 발행인 30여명에게 형벌과 유배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민간조보'는 영천 동부동 용화상 주지 지봉스님이 서지 관련 경매사이트에서 입수해 공개됐다. '민간조보'는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물 '무구정광대다라니경',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물 '직지삼체요절'과 우리나라 출판물의 계보를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은하 기자



민간조보(1577년 정축 11월23일)

'DIMP 뮤지컬아카데미' 4년간 끊임없이 성장



제10회 DIMP 창작지원작 선정 '로렐라이' 1기 박선희 작가, 1기 구지영 작곡가

4년간 오디션 365명 지원 212명 선발, 179명 수료 한예중 입학, 뮤지컬 주연 데뷔, CJ 아지트 등 각종 공모전 입상 등 놀라운 성과

스릴러, 멜로, 시대극 등 해마다 주제로 곁도 신선한 작품들이 'DIMP 뮤지컬아카데미'를 통해 개발됐다. 현재까지 39편의 작품들이 'DIMP 뮤지컬 아카데미'에 그 이름을 남겼다.

■입학, 데뷔, 당선, 초연 등 수료생들이 이뤄낸 놀라운 성과

지난 4년간 'DIMP 뮤지컬아카데미'의 문을 두드린 365명의 지원자들 중 발전 가능성에 중점을 둔 뒤어난 212명의 인재들을 선발했다.

그들에게 학교나 학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실용적이고도 실질적인 뮤지컬 전문교육을 펼쳐왔다.

뮤지컬 분야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국내·외 최고의 강사진들로 구성된 'DIMP 뮤지컬아카데미'를 통해 많은 지역의 인재들이 놀라운 성장을 보였다.

제1기 배우과정 서영수 수료생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을, 제3기 창작자과정(작가 부문) 최영현 교육생은 전문사 음악극창작 협동과정에 합격했다.

그 밖에도 제2기 배우과정의 김해연 수료생이 서울예술대학교 연기과에, 제2기 최성우 수료생은 한세대학교 뮤지컬과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또 제1기 배우과정의 김재우, 제2기 황민태, 제3기 주현지 수료생들은 명지대학교 뮤지컬과에 입학도 알렸다.

■일반인 뮤지컬 저변확대를 위한 'DIMP 뮤지컬아카데미'

2017년 제11회 DIMP의 부대행사로 시작한 'DIMP 열린뮤지컬특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뮤지컬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해 줄 프로그램으로 발전했다.

인기 작가 조승연, 뮤지컬 평론가 원종원, 뮤지컬 음악감독 장소영, DIMP 배성혁 집행위원장이 출연해 인문학을 결합된 뮤지컬의

이해, 무비컬(Musical + Movie)에 대한 소개, 뮤지컬 넘버와 스토리, 세계 4대 뮤지컬 및 DIMP에 대한 주제로 총 4회 개최됐다.

■뮤지컬 전문인력양성, 지역을 넘어 세계로 'DIMP 글로벌캠프'

지난 여름에는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중국 대학생 30명이 'DIMP 뮤지컬아카데미'의 문을 두드렸다.

9박 10일동안 2편의 공연 관람과 'DIMP 어워즈' 등에 참석했다.

또한, 그간 국내 최고의 강사진들과 함께 축적해온 'DIMP 뮤지컬아카데미'의 노하우를 축약한 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 뮤지컬 배우의 꿈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배성혁 DIMP 집행위원장은 "지역의 인재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한 지원과 노력을 펼친 결과, 지난 4년간 'DIMP 뮤지컬아카데미'가 많은 성과를 낸 것 같다 기쁘다. 앞으로도 지역의 뛰어난 청년들이 뮤지컬 산업의 차세대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준범 기자

대구은행-대구오페라하우스 2018 희망나눔음악회 열려

지역 문화소의 아동·청소년 초청

DGB대구은행과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지난 27일, DGB대구은행 제2본점 대강당에서 청소년을 위한 '2018 희망나눔음악회'를 개최했다.

음악회는 지역의 아동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며,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지역 문화소의 계층 아동 및 청소년을 초청해 진행됐다.

올해는 지역 초등학교 및 중학생 250여명과 복지사 50여명이 초청돼 대구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 공연과 다양한 이벤트, 행운권 추첨 등의 시간을 가졌다.

공연 전 포토티즌 기념 촬영 및 기념품·선물 등이 증정됐다. 이어, DIO 오케스트라의 경기병서곡 연주로 첫 무대를 열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귀에 익숙한 음악들이 나와 즐거웠으며 지휘 체험 경험이 기억에 남는다"고 소감을 말했다. 최경수 기자

국립국악원, 국악관현악 신진 지휘자 공개 모집

국립국악원이 국악관현악을 이끌 차세대 신진 지휘자를 공개 모집한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은 이번 공모로 선발한 지휘자와 3월 8, 9일 서울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청춘, 청어람' 무대를 선보인다.

최근 대학별 국악과의 세부 전공으로 지휘 전공을 개설, 교육 과정이 전문화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국악관현악단을 지휘하는 경험을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국립국악원도 "서양 음악의 지휘 전공자들에게는 국악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가 어려워 서양 음악의 지휘자 발굴 기회에 비해 국악 관현악의 지휘자 발굴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인정하며 "이러한 국악관현악 지휘자 발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양 음악 지휘자들의 국악 저변확대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이번 신진 지휘자 공개 모집을 통해 공연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공모 접수는 국립국악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만 45세 미만의 대학원생 이상의 국악, 서양음악 지휘 전공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톡! 톡! 톡!

가는 TALK이 고와야

오는 TALK이 곱다!

욕설과 비속어는 물론, 이해하기 힘든 단축어는 유행어가 아닙니다. 청소년 시기에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이후 사는 삶 역시 거칠고 타인과 본인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계명대 국외봉사 아시아 넘어 세계로

동계국외봉사활동 발대식 가져 아프리카와 중남미까지 확대

계명대학교 국외봉사활동이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에서 중남미까지 봉사활동 지역을 확대했다.

지난 28일, 성서캠퍼스 행정박물관에서 '2019학년도 동계국외봉사활동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국외봉사활동은 에티오피아를 시작으로 태국, 콜롬비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5개 국가에서 150여명이 봉사활동을 펼친다.

국외봉사단은 △노력봉사-학교 교실, 화장실 증축 혹은 리모델링, 놀이터, 울타리 개보수 등 △교육봉사-유아교육, 태권도교육, 사물놀이 교육 등 △기증봉사-한국전통무용, 태권도 시범, 사물놀이 공연 등 문화공연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사랑을 전할 예정이다.

또한, 처음으로 중남미 지역인 콜롬비아에

서도 봉사활동을 한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한국전쟁의 참전국가로, 감사에 보답하게 돼 그 의미가 크다.

김용일 계명대 학생부총장 겸 계명카리타스봉사센터장은 "봉사와 나눔은 우리 장립정신과 같이한다. 어려운 시절 선교사들의 도움이 우리 발전의 초석이 됐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받은 것을 되돌려 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경수 기자



계명대가 2018학년도 동계방학을 맞아 에티오피아, 태국, 콜롬비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으로 국외봉사활동을 떠나기 전 발대식을 가졌다

금오공대, 대학평의원회 출범

교수·직원 등 14명 구성 학칙 개정 등 심의·자문

금오공과대학교(총장 이상철)는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고 임명식을 가졌다.

29일 금오공대에 따르면 지난 7개월간 T/F를 통해 준비해 온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완료됐다.

대학평의원회는 학칙 개정 등 대학 발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게 된다.

대학은 최근 대학평의원회를 최고 심의기구로 하는 내용을 담아 학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학칙에는 대학 내 인권 문제와 갑질 문제를 처리하고 대학 구성원의 행복한 대학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행복인권센터도 부속 시설로 설치했다.



금오공대 대학평의원회는 교수 7명, 직원 3명, 학부생 2명, 대학원생 1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이은진 기자

해 현 교수회장인 박노진(사진)신소재공학부 교수를 의장으로 선출했다.

그는 "교수, 직원, 조교, 학생이 함께 민주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대 2019학년도 신입생 621명 정시모집

내달 3일까지 인터넷 접수 계열 간 교차지원 가능

안동대학교가 2019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원서를 내년 1월 3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안동대에 따르면 이번 (가/나/다)군 정시모집 신입생 인원은 6개 단과대학, 6개 학부, 40개학과에서 총 621명이다.

(가)군은 공과대학, 창의융합학부(인문사회계열), 인문예술대학(의류학과), 사회과학대학(생활복지학과), 생명과학대학(식품영양학과)이다.

(나)군은 인문예술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창의융합학부(이공계열), (다)군은 음악과에서 모집한다.

전형방법은 학과별로 수능성적 및 실기고

사 등으로 선발한다.

대학수능능력성적의 반영과목 및 반영비율이 모집단위별로 차이가 있어 본인에게 유리한 모집단위를 선택해 지원해야 한다.

안동대학교의 경우 반영지표는 백분위 성적이다.

문과 및 이과 구분 없이 계열 간 교차지원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적성에 따라 원하는 학과에 지원할 수 있다.

실기고사의 경우 (다)군 음악과는 내년 1월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지정고사장에서 치러진다.

최종 합격자는 (가/나/다)군 모두 내년 1월 29일 오후 2시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1월 30일 오전 9시부터 2월 1일 오후 5시까지 안내된 등록금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김용구 기자

영진전문대 '금융사 취업' 두각 보인다

삼성그룹 금융사 등 4명 합격

영진전문대학교는 스마트경영계열 금융실무반이 국내 금융사 최고의 일자리 중 하나인 삼성그룹 금융사 등에 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합격자 4명은 삼성화재와 KB금융그룹 KB손해보험, DB금융그룹 DBCAS, 삼성생명 계열 P&P화재 등에 취업했다.

금융실무반 장병찬(2년)씨는 방위산업 분야 대기업체인 LIG넥스원의 원가산정 신입사

원 1명 선발에 합격했다.

영진전문대 스마트경영계열 금융실무반은 금융분야 현장맞춤형 우수인재 양성을 목표로 개설돼 금융기관에서 요구되는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전문대로는 유일하게 금융전문가 교육과정인 재무설계사(AFPK)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또 한국수출입은행, 삼성증권 등 금융기관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현장 전문가들로 교수진을 구성,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

최경수 기자

대구사이버대, 미술치료학과 심리평가상담 전공 개설

대구사이버대학교는 사이버대학교 최초로 미술치료학과 심리평가상담(임상심리)전공을 개설했다고 29일 밝혔다.

심리평가상담 전공은 임상심리사 양성, 임상심리사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임상심리에 특화된 교육 및 실습 체계를 통해 임상심리사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1년 실습을 모두 이수할 수 있다. 대구사이버대에 입학할 원하는 사람은 누리집(www.dcu.ac.kr)에서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 가능하다.

최경수 기자

구미대 작업치료과 국가고시 27명 전원 합격



구미대 작업치료과 학생들이 실습을 하고 있다.

2015년부터 4년 연속 100% 합격률 그룹스터디·주말 특강 교육 한 몫

구미대학교는 작업치료과(학과장 이윤미) 재학생 27명이 한국보건직업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한 '2018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에서 전원 합격했다고 29일 밝혔다.

방과 후 학생 주도형 그룹스터디와 주말 특강 교육이 한 몫을 했다.

2015년부터 4년 연속 100% 합격률을 보이며 대구·경북지역 유일한 작업치료과가 됐다. 올해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은 전국 응시자 2022명 중 1780명이 합격해 평균 합격률

88%를 나타냈다.

이윤미 학과장은 "개인별 밀착지도, 다양한 학습방법 개발 등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이 4년 연속 100%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어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작업치료사 양성의 요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작업치료사는 신체 손상이나 질병 등으로 제한된 생활을 하는 개인의 전문적 재활치료와 독립성을 높여 환경에 적응하게 하는 보건 재활 전문인력이다.

3년제 과정인 구미대 작업치료과는 전문 작업치료사 양성을 위해 4년제 정규 학사학위인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은진 기자

경북대 사범대 교수들, 강의 기부·현장체험 진행

중·고등학생 대상 수업

경북대 교수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수업을 진행했다.

지난 20일, 21일, 27일에 지리·도덕·과학·수학·가정·생명과학 등 다양한 교육전공의 사범대 교수 7명이 경북대 사범대학부설중·고등학교를 찾아 두 시간에 걸쳐 해당과목을 수업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와 토론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돼 학생들의 호응도도 높았다.

수업에 참여한 한 학생은 "선생님의 선생

님이 오신다고 해서 수업 내용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궁금했던 대학 공부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과학수업을 진행했던 박윤배 경북대 사범대학장은 "사범대 학생들만 교습 실습이 있는 것이 아닌 예비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 교수들도 실습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번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됐다. 실제 수업과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예비 교원에 대한 효과적인 학습 지도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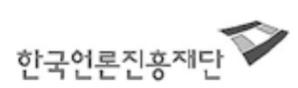
최경수 기자





아이에게 꿈을 읽어주세요

지금,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1:1 책 읽어 주기가 시작됩니다.
사서와 자원봉사자들이 어린이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의 꿈이 자라납니다.



한국어론진흥재단

전국 초·중·고 학생 참가
(우승·준우승·3위 장학금 지급)

꿈나무육성

제5회 대구광역일보배 전국아마추어골프대회

2019 **gOLF** 대구광역일보

2월 25일 월요일
경주신라컨트리클럽

주최 (주)대구광역일보사
주관 대구광역일보골프클럽



참가규모 95팀(학생부 포함 384명)

2월 20일까지 선착순 마감
2월 25일(월) 오전 10시 30분 동시 티오프
2부 시상식 및 유명 연예인 공연
경주현대호텔 대연회장 저녁 6시

- ▣ 참가부문 및 자격: 전국 초·중·고 및 남·여 아마추어
- ▣ 학생부 참가비: 15만원(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포함)
- ▣ 일반부 참가비: 19만원(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포함)
- ▣ 참가비 입금계좌: 농협 352-1400-8617-53
예금주: 박경선(대구광역일보골프클럽)
- ▣ 접수기간: 12월 13일-2019년 2월 20일까지 선착순 마감
- ▣ 참가문의: 대구광역일보 사업국(053)257-0000
(053)253-0000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일보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